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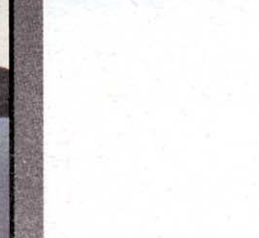
제 25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7월 15일

【1】

우리는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었다



〈커버스토리 6~7면〉

관학춘추

한국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들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총동창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LA와 뉴욕, 워싱턴DC, 보스턴 등에 대한 순방에 나섰다.

6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8차 재미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 재미동문들을 격려하고 결속을 강화한 뒤 미국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과도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는 그동안 해외 동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왔는데, 이번에도 미국 순방길에 나서 해외동문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출신 동문들은 한국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작 유대와 결속, 상호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 독불장군」처럼 처신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같은 「서울대 기질」을 끈끈하고 인간적인 「사람대 기질」로 탈바꿈시

키기 위해서도 서울대총동창회의 해외동문 순방은 뜻있는 행사가 될 듯 싶다.

특히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국제적인 제도와 관행, 기술과 자본과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국경없는 지구촌 시대」이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一家를 이룬 서울대 동문들의 정보와 지식, 자본을 우리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울대총동창회가 그런 네트워크 중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 대만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해외동포 및 해외유학생의 기술과 자본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이 공산주의체제를 겪고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만 화교의 협조와 투자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 해외동포 특히 서울대 동문들의 협력과 기여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난해 혹독한 IMF고통을 겪고 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해외 서울대 동문들이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라고 여긴다. (靑)

동문칼럼

음악 교육·강단의 풍토 바뀌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4년제 및 2년제 음악 대학과 음악과를 졸업하는 음악전공자들의 수는 6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과연 졸업 후에 교향악단·합창단의 단원, 초·중등 음악교사 등 방송·출판·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을 받고 대학 문을 나서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장담하지 못한다.

확실한 것은 첫째 이들의 대부분이 다행히도(?) 여성들이어서 졸업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결혼과 함께 활발한 직업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후학들이 풍운의 꿈을 품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유학을 다녀오지만, 귀국 후 초과포화 상태의 대학강단에 설자리를 얻지 못해 떠돌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대학강단의 심각한 초과포화 상태는 급기야 강사자리를 금전으로 팔고 사는 관행을 이 땅에 정착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의 후학을 길러낸다는 열정은 커녕, 최소한의 의욕과 관심도 없이 제공하는 무성의한 수업에서 길러지는 무표정과 무의욕의 후학들, 여기에 수십년이 흘러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교과과정들이 우리의 후학들을 무표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도 짧지도 않다. 첫째, 입시제도, 교육제도 및 관계법령을 과감히 고치자. 현재의 원시적이고 단세포적인 연주테크닉 측정 위주의 전공실기시험 관행을 개선해서 수험생의 음악적 해석능력, 초연능력, 청음능력, 음악사에

대한 이해(논술)도 측정하는 등 음악가로서의 성장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입시제도를 만들어보자.

둘째, 형식적이고 진부하고 비효율적이고 낡은 교과과정을 과감하게 바꾸자. 짧은 수업시간에 많은 과목의 내용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암기시키는 이론위주의 수업에서 전공별 워크숍, 실내악앙상블, 관현악, 공개레슨/매스터클래스와 같은 실기위주의 수업으로 바꾸고 교육부의 규정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 교양과정을 교과과정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자율성을 대학에 허용하자.

셋째, 현재와 같은 반쪽음악인의 무더기 양산에서 소수정예의 진짜 음악인을 길러 낼 수 있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학을 비롯한 음악교육기관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자.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음악애호가나 성인들은 2년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형태의 콘서트바토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비싼 레슨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의 자제들만이 음악을 전공하여 이들이 다시 부유층 음악도를 만들어 내는 현재의 대물림 악순환을 막아보자.

넷째, 음악인들 모두가 안되면 우리 동문들이라도 「우리 사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초라한 자괴와 변명에서 탈피하여 대학강단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부끄러운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 후학들을 특히 지방대학에 있는 후학들을 열의를 다해 길러내자.

한 해 6천명을 웃도는 대학입학정원으로 음악전공희망자들의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진학을 줄이거나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을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치자. 그리고 국내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유학간 음악도들 중에서는 왜 세계적인 음악인이 거의 나오지 못하는가를 부지런히 생각해보고 또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자. 어려운 주문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음악계를 반세기 가까이 각 분야에서 이끌어 왔고 현재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끌 우리 동문들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주요목차

서울대 가족3면
金在坤동문
건강을 지킵시다3면
朴尙東 동서한방병원장

동문을 찾아서9면
劉俊相 서울시립미술관장
화제의 동문14면
朴永夏 을지재단 회장
기업탐방14면
재우전자(주)



崔重元
(80년 音大卒)
서울시향 바순
수석연주자

지부순례

북경지부

회원간 포용력 대륙만큼 넓고 커 동문 유학생 지원사업에 중점

글 : 金東震(70년 農大卒·포스코북경사무소 소장)회장

중국의 북경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근접해 있으며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특히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등 역사적인 유물들과 용형협과 같은 뛰어난 관광지가 많아 이미 한국에는 잘 알려진 곳이기도하다.

특히 북경은 한·중수교 이후 수많은 여행자, 학생, 사업가 및 정계, 재계, 외교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한번 정도는 다녀갔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중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이다.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의 구성은 우선 한국의 각 기업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유학생들로 대개 한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북경

의 우수한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외교관 및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동문들도 다수이며 북경지부의 동문 수는 천진 지역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북경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단기로 동문들의 전출입이 잦아 여타 다른 지부에 비해서 변동이 많은 편이다.

특히 출장 및 거래선과의 모임이 많은 동문들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북경지부의 모임은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북경지부는 96년말 처음으로 동창회 명단을 작성하고 총회 및 망년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초대 회장으로 鄭溶(65년 商大卒)동문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북경지부는 97년 11월 동문 운

동회를 개최한 후 금융위기 여파로 회식이나 모임 등을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1년 동안 모임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초부터 李宗秀(68년 商大卒)동문이 임시 회장을 맡아 북경지부 활성화에 전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후 지난 98년 12월 동문명단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12월 15일 북경지부 총회 및 망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약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과보고 및 신입 회장단 선출에 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망년회를 치렀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필자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朴鍾旼(72년 文理大卒)동문, 간사에 金東勳(83년 農大卒)동문이 선임됐다.

한편 금년 1월 15일에는 회장단과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李南周(89년 社會大卒)동문과 북경대 경제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준엽(90년 社會大卒)동문의 학위 취득 및 환송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북경지부는 올해 석·박사과정의 동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넓히고, 북경지부의 활성화와 동문 상호간의 결속에 힘을 다할 예정이다.



98년 정기총회 (좌로부터 첫번째 필자)



金在坤동문

7남매·매제·제수 등 11명이 서울대인

『아홉 남매중 일곱을 서울대에 보내셨으니 당연히 대단한 어머니요, 열성 교육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범한 보통의 어머니였습니다. 일생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독촉의 말 한번을 안하실 정도로 자식들을 많이 믿어주셨죠』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金在坤(63년 法大卒·백천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동문에게 어머니 故 李新芳여사는 화제 속의 인물이 아닌 인고의 세월을 말없이 견뎌낸 우리 시대의 어머니 전형 그 자체이다.

최근 「내가 걸어온 좁은 길(샘물刊)」이라는 책을 펴내 장안에 화제가 된 바로 그 가족의 장남으로 金동문은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겸손해 했다.

『선친이 경찰공무원이셨던 관계로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엄두도 못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 가장 싼 모교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남인 金동문이 서울대 입학의 첫 테이프를 끊자 장녀 金多惠(64년 家政大卒)동문도 이듬해 무사히 합격, 선배 언니의 소개로 만난 盧相榮(60년

工大卒·미정부 NRC 원자력규제위원)동문과 결혼해 현재는 미국 워싱턴시 St. Elizabeth병원의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 때문에 서울행을 포기하고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차남 金信坤전남대 교수는 그래서 광주에 살며 어머니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고.

모교 공대 2학년 재학시절 학교 기숙사에 혼자 머물다가 장질부사를 앓아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삼남 金光坤(68년 工大卒)동문은 무사히 건강을 되찾고 졸업후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IBM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최근 현대전자 미주법인 부사장을 맡고 있다.

6·25가 끝나고 태어난 차녀 金恩惠(75년 家政大卒)동문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형제간에도 자애로운 마음이 뛰어나다고 한다. 현재 白炯琮(71년 工大卒·한미쇼핑(주) 대표)동문과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뛰어난 머리로 형제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여자로서는 드물게 법대에 입학한 삼녀 金善惠(77년 法大卒)동문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

하고 있으며, 남편인 梁虎承(78년 社會大卒·대법원 재판연구관)동문과는 고시시험장에서 어머니들끼리 먼저 호감을 느끼고 혼담을 진행시킨 이례적인 케이스로 집안내에서도 유명하다.

어머니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한다는 사녀 金慈惠씨 또한 동생들을 위해 자진해서 서울행을 포기, 광주교육대학을 나와 현재 교편을 잡고 있다.

가족들의 가슴에 아픔과 자랑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사남 故 金泰勳(78

년 社會大入)동문은 경제학과 4학년이었던 1981년 5월 27일 광주항쟁 1주기 기념 시위 현장인 모교 도서관 6층에서 투신했다. 평소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신부가 되고 싶어했던 사랑스러운 동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고 金동문은 회고한다. 지난 98년 받은 金泰勳열사의 보상금은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 생전의 본인의 의로운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쓰였다고 한다.

장남인 金동문과 무려 2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金要完(88년 醫大卒)동문은 현재 한일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程智寅(89년 家政大卒)동문과 결혼해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美)



앞줄 좌로부터 程智寅·金善惠동문, 네명 건너 金恩惠·金多惠동문, 셋째줄 좌로부터 金要完·梁虎承·金光坤·金在坤동문, 두명 건너 白炯琮동문

건강을 지킵시다

중풍의 예방과 치료

朴尙東(2기·EPHPM)동서한방병원장



중풍(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뇌에서 이상을 나타내어 손상된 부위에 따라 증상(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 마비)이 급격히 발생하는 병이다.

특히 몸의 한쪽 팔다리, 얼굴 근육 등이 저리거나 약하게 느껴질 때,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것이 곤란하고 음식이 잘 삼켜지지 않을 때, 눈이 가끔 안보이거나 희미할 때, 소리가 잘 안들리거나 이명이 날 때, 몸의 균형이 잘 안잡혀지고 어지러우며 물건이 둘로 겹쳐 보일 때, 구역질이 나거나 이유없이 오랫동안 두통이 계속되고 신경질이 날 때, 자신도 모르게 성격이 변할 때, 혈압이 높거나 가족력에 고혈압의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며 구토가 있는 경우 체한 것으로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풍일 경우가 많다.

중풍의 종류에는 뇌출혈과 뇌경색, 고혈압뇌성증, 일과성뇌허혈증 등이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과음, 흡연, 스트레스, 감정적 흥분, 운동부족, 비만 등과 유전적 요인이 있다.

갑자기 중풍이 왔을 때 한방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급혈의 침자극과 청심환 등을 투여한후 증상과 원인에 따라 중풍을 치료하는 한약요법과 물리요법을 선택하게 된다. 급성기의 응급치료를 다루는 중풍치료와 이 시기가 지난후 원인증상에 따라 환자의 편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치료 등을 선택하여 치료한다.

간단한 민간요법으로는 기존에 중풍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침환을 만들어 복용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신장성이나 신경성이면 병잎차를, 본태성 고혈압이면 감잎차나 잣잎차를 복용한다. 또는 쌀러리 200g, 상추 100g, 시금치 100g, 당근 100g을 강판에 갈아서 복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저혈압이 있으면 잣죽을 해서 먹거나 산약, 구기자 각 75g, 인삼 37.5g, 소뽕 300g을 물 6사발을 부어 반이 되게 끓여서 2~3일간 복용하고, 몸이 비만인 경우는 울무 50%, 검은깨 20%, 현미 20%, 검은콩 10%로 죽을 해서 먹는다. 또한 동맥경화가 있으면 당근 280g, 오이 100g, 시금치 170g을 갈아서 복용하고, 어지럼증이나 허약한 체질인 경우는 검은깨 300g을 볶은 다음 호도살 300g을 볶아서 가루를 만든 후 매일 3회(1회 한술가락씩) 복용한다. <동서한방병원: 320-7890>

추억의窓

소나무 숲 울창하던 종암동 캠퍼스
교복 낀아 염색한 군복 즐겨 입어

成耆虎(64년 商大卒)성결대학교 총장

내가 입학하던 1950년대 말의 상과대학은 종암동 한 모퉁이에 있었다. 신설동까지만 포장되어 있었고 거기서부터는 비포장 도로를 먼지 속에서 달려야만 했다.

고등학교에서 마련해준 입시버스를 타고 처음 찾아가 본 상과대학은 웅장한 건물도 아기자기한 환경도 갖추지 못한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다. 학교의 위치나 건물이 인물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모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20세기의 한국을 이끌어 온 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다.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한국의 준재들이 전후의 한국을 부흥시킬 내일의 꿈을 키워온 것이다. 학생들이 의사의 왕진 가방만큼 큰 가족 책가방을 끼고 종암벌을 부지런히 누빈 결과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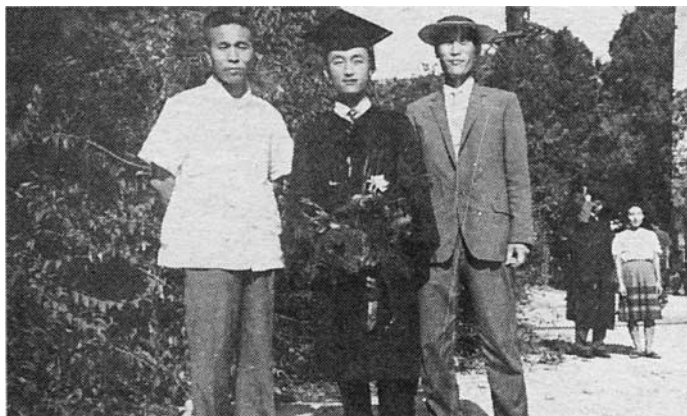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때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렵웃이나마 체험하고 대학시절에는 4·19 학생의거의 주역이 되고, 군대에 들어가서는 5·16 군사혁명을 겪는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낸 우리 또래들은 고난을 참아내며 극복하는 타고난 지혜와 인내를 터득해온 터이다.

나는 대학에 입학해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을 애용하다가 그 옷이 낡아지자 국제 신사복이라 불리는 염색한 군복과 낡은 군화로 거의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작업복 원판 위 주머니 뚜껑에서 빛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배지에 언제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흙먼지 속에 이는 봄바람을 따라 교정 한 모퉁이의 소나무 숲으로부터 송충이들이 교실 안에까지 침입해오던 종암동의 상과대학. 이제 학교 명칭도, 위치도 바뀌어 가끔씩 변색한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그리울 때가 있다. 게다가 입시 철이면 언제나 공대, 법대와 함께 입시 경쟁률의 우위를 다투던 상과대학이 이제는 신문지상에서 그 명칭을 찾을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상과대학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로 나뉘어 존재한다 할지라도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의 두뇌들이 계속해서 상과대학의 전통을 이어가리라 생각하며 새벽이슬같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본다.



1964년 후기졸업식(가운데 필자)



지난 6월 서해교전에서부터 베이징 남북차관급 회담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남북접촉을 보면서 우리는 대북정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해교전은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하되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북한 경비정이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그들이 자진 물러가도록 설득하다가 말을 안듣자 「총돌식 밀어내기」로 강경수단을 동원했다. 마침내 그들이 먼저 발포하자 대응사격으로 그들을 몰아냈다. 인내심을 발휘하면서도 원칙대로 대응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남북차관급 회담에서는



宋鎮赫 중앙일보 논설주간

이 과정에서 보면 사전합의가 있던 말든 남북회담은 北이 하자면 열리고 안하자면 안열린다. 의제에 상관없이 北은 자기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대표단 명단 통보조차 안하는 무례를 저지른다. 그럼에도 우리측은 속수무책이다. 서해 무력도발은 당신네가 먼저 하지 않았소 하는 반박도 하지 못한다. 비료도 보내주고 금강산관광으로 1억몇천만달러를 제공했는데도 北을 견제하거나 강제할 카드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원칙」 필요한 對北정책

일이 이상하게 진행됐다. 남북쌍방은 6월 22일 베이징의 쉴펑스키 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의제로 회담을 갖기로 사전합의가 돼 있었다. 그러나 北측은 회담직전까지도 대표단이 누군지 명단도 통보하지 않았고, 회담 예정시간을 일방적으로 두번이나 연기시키다가 끝내 첫날 회담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다음날 가까스로 열린 회담에서도 北측은 서해사태를 우리측이 먼저 무력도발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미리 짜여진 전쟁각본의 시발이라고 퍼부어댔다. 합의된 의제는 다루어 보지도 못한 채 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우리 대표단은 만 이틀을 할일없이 기다린 끝에 다시 北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26일에야 회담을 속개할 수 있었다.

오직 회담을 하기 위해 참고 또 참는 모습뿐이었다. 北측이 모욕을 주고 무례를 범하고 일방적으로 회담을 제멋대로 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자존심만 구기고 있을 뿐이었다.

금강산관광객 억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평범한 주부를 억류한 것만으로도 北측은 우리측에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거꾸로 몸이 단 것은 우리측이었다.

이처럼 차관급회담과 관광객 억류에서는 우리측의 「인내」는 있었지만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대북정책에서는 인내와 포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내가 도를 지나쳐 굴욕까지 감수하거나 회담을 회담답게 하는 우리대로의 원칙마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자기 소변 마셔 암·당뇨를 치료한다

金貞姬(56년 文理大卒·84년 保大院卒)한국요료법연구회장

5월 12일 우리를 일행은 독일 프랑크 푸르트공항에서 기차를 탔다. 차창너머 멀리 보이는 물결치는 보리밭. 군데군데 펼쳐진 노란 유채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알라딘 모양의 교회탑과 형형색색의 목조가옥들이 어우러진 동화 나라속 한쪽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휴양지 게스펠드에 도착했다.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2회 요료법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45개국에서 온 손님들이 이거리 저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인구 4천 명가량의 조그마한 휴양도시가 온 세계에서 온 겹고, 회고, 누런 인종들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다.

대회장에는 25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尿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136명의 발표자들은 제각기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여러 사람들의 발표에 열심히 귀기울이고 있었다. 워낙 많은 나라이기에 제각기 통역이 잘 되지 않아 곤란함을 느낀 대회였으나 요료법하는 친구들이라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친근감이 가기도 했다.

요료법이란 한마디로 자기의 오줌을 자기가 마시으로써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요법인데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 중에는 의사·약사·학자들이 과반수이상이며 4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놀랐다.

한국 M. C. L.(Miracle Cap of Liquid)연구회 이해영총무는 한국의 요료법 활동상황을 소개하였고, 성균관대 강국희교수는 요료법 양돈에 관해서 그리고 前부산약사회장인 김용태약사는 요료법과 식이요법으로 암과 당뇨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나카오의사는 요료법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그리고 요료법 전문병원 원장인 사노박사는 요료법으로 암환자 치료사례를 발표하였다.

대만의 中國학자인 리아우박사는 미국 텍사스주 버진스키 연구소에서 연구한 오줌에서 분리된 「CAD-II」라는 항암제를 소개하였고 버진스키 연구소의 버진스키박사는 Antineoplastones(혈액 성분 중의 하나)와 요료법에 대하여 깜짝 놀랄정도의 사례를 발표했다.

독일 방송작가인 토마스 칼멘(「참으로 특별한 신의 선물」의 저자)은 『독일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쓴 책을 읽고 요료법을 실행한다면 제약회사나 화학물질 제조회사들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고 나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훈장이라도 받을 수 있을만큼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백년에 걸쳐 자라는 우리의 오줌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들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도록 배려해 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재배되어 시장에 나온 초라한 토마토보다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한 심상한 것을 더 선호하니까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내책을 읽지 않을 것이고 셋째 현대의약으로 낫지 않는 여러 가지 병이 기적처럼 낫는다는 이런 말을 누가 금방 믿으려 하겠습니까? 맞아요 꼭 흔히 말하는 과대광고 선전물 같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방송인답게 의젓하고 능수능란한 제스처로 청중을 사로잡기도 했다.



좌로부터 세번째 필자

재미동창회 새 임원진 구성

吳仁錫회장 연임·수석부회장에 李龍洛동문

제8차 평의원회의서 「관악후원회」 결성기로



좌로부터 宋斗瀾·金在淳·吳仁錫·宋丙洛·李丙俊동문

재미동창회(회장 吳仁錫)는 지난 6월 20일 뉴욕 Marriott 호텔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宋斗瀾부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鄭哲圭 前공대동창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宋丙洛부총장, 南相午발전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해 재미동창회 각 지부 평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했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韓·美 양국간의 진실되며 힘있고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의 모임(Club)을 구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이 미주 땅에 한국을 사랑하는 국제인맥 네트워크가 우리 서울대인에 의해 발기(Initiate)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宋丙洛부총장은 모교의 종합연구대학 발전계획과 전망을 소개하고 재학생에게 교육시켜야 할 4가지 소양-영어 등

외국어, 컴퓨터, 글로벌 시티즌십, 팀워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뉴욕지부 尹烜玉 전임회장, 李典九재단이사장, 宋寬鎬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재미동창회 인터넷 사이트 개설 지원금으로 5천달러를 吳仁錫회장에게 전했으며 뉴욕지부 주최 서울대 통일음악회 지원금 1천달러를 뉴욕지부 宋寬鎬회장에게 전달했다.

안전심의를 통해 뉴욕지부 尹烜玉전임회장, 남가주지부 方錫勳전임회장, 시카고지부 崔日柱동문, 워싱턴DC지부 方恩鎬동문을 신임 평의원으로 인준했다.

이어 미주지역 동창회 지부분담금을 작년보다 상향 조정한 8천5백달러로 책정했으며 동창회보의 자립을 앞당기고 동창회의 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재미 관악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

결했다. 본회는 이날 관악후원회 지원금으로 순방단이 각출한 2천달러를 李在德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임원개선을 통해 吳仁錫회장을 재선임하고 수석부회장에 시카고지부 李龍洛(53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으며 감사선출 및 사무총장 임명, 제9차 평의원회의 일정 등은 각 지부의 조율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남가주 지부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吳興祚)는 지난 6월 17일 LA Radisson Wilshire Plaza호텔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순방단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각 단대동창회 대표와 임원을 포함, 이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남가주지부 方錫勳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모교의 대학원 중심대학 발전계획 및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모국과 모교 발전에 동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뉴욕 지부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宋寬鎬)는 지난 6월 19일 Shawnee골프리조트에서 본회 순방단과 재미동창회 평의원 및 뉴욕지부 동문 등 80여명이 친선 골프대회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Closest to Pin 경합을 벌여 장학기금을 모금했으며, 李榮(참피언)·崔慶善(메달리스트)·鄭澤洙(골든클럽)·盧在洪(1등)·金太一(2등)동문 등이 수상했으며, 단체 우승한 농대동창회가 총동창회 장배를 수상했다.

워싱턴DC 지부

워싱턴DC지부동창회(회장 李來源)는 지난 6월 22일 강서면옥에서 본회 순방단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韓義生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李來源회장은 총동창회 동창회보 취재에 이용해 달라며 카메라(Nikon N60) 1대를 李世震사무총장에게 기증했다.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음대출신인 金椿姬동문이 축하를 불러 갈채를 받았으며, 본회 金在淳회장을 포함해 참석한 동문들이 노래자랑을 펼쳐 훈훈한 동문애를 연출했다.

뉴잉글랜드 지부

뉴잉글랜드지부동창회(회장

재미동창회 임원개선과 재미동창회보 재정자립을 위한 관악후원회 결성을 주요 의제로한 제8차 재미동창회 평의원회, 그리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뉴욕지부 주최 서울대 음악회 개최에 즈음하여 본회 金在淳회장, 宋斗瀾부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鄭哲圭 前공대동창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宋丙洛부총장, 南相午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순방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LA(남가주), 뉴욕, 워싱턴DC, 뉴잉글랜드(보스턴)를 방문했다. 본회 순방단은 남가주, 뉴욕, 워싱턴DC, 뉴잉글랜드 등 4개 지부간담회를 통해 재미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朴京民)는 지난 6월 26일 보스턴 Newton Marriott호텔에서 본회 순방단을 비롯해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崔浩원집인 등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안한 국내 정세와 안보·대북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한·미 간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에는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기반이 강하고 固定客이 있는, 세계에 發信할 수 있는 Think Tank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은

엘리트들이 정책 입안의 중심적 존재가 되는 날을 학수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하버드大學과 MIT동창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조의 슬라이드 쇼를 통해 하버드대학과 MIT동창회의 활동과 기금 모금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한편 본회 순방단은 6월 25일 하버드 Yenching 도서관 한국 서적담당 사서인 尹忠男(64년 文理大卒)박사의 안내로 도서관을 견학했으며, MIT대학을 방문해 한인학생회 李錫沅(93년 工大卒)회장으로부터 대학현황을 브리핑받았다. (變)



남가주지부 간담회



뉴욕지부 친선골프



워싱턴DC지부 간담회



뉴잉글랜드지부 간담회

뉴욕지부

「통일 음악회」 성대히 치러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宋寬鎬)는 지난 6월 20일 맨하튼 Lincoln Center Alice Tully 홀에서 1천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蔡一熙(77년 音大卒)·玄宗健(52년 音大卒)동문이 차례로 지휘를 맡고 음대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베르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등을 차분하고 열정적으로 연주해 청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뉴욕지부 李典九재단 이사장이 하모니카로 「Eine Kleine Nachtmusik」를 동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바리톤 廉京默(89년 音大卒)동문의 「선구자」와 메조소프라노 朴榮洙(72년 音大卒)동문의 「가고파」 독창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고국의 품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특별 참석한 安丙元(50년 音大卒)동문은 자신이 작곡한 「통일서곡(Forever One Nation)」을 동문 오케스트라 및 「Radio Seoul 1480 교민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해 모든 이들을 감동의 물결로 이끌었으며, 모두가 함께 일어나 「우리의 소원」을 힘차게 부르며 음악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들 물어봐요
교과서만
Meet

서울대인 세계에서 모교를 빛내고 있다

세상은 점점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 선진 지식인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Global Citizen-ship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지구촌 시민으로서, 국위선양은 물론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며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49개 해외지부의 동문들을 대표하여, 캐나다 밴쿠버지부 崔靑一회장을 비롯한 해외지부 동창회장들과 함께 지상 토론의 장을 마련,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토론자〉

- 캐나다 밴쿠버지부 崔靑一(58년 文理大卒)회장
- 일본지부 奉光玉(58년 齒大卒)회장
- 인도네시아지부 裴相璟(61년 商大卒)회장
- 미국 남가주지부 吳興祚(61년 齒大卒)회장
- 프랑스 파리지부 申載暢(64년 文理大卒)회장
- 재미동창회 李在德(64년 法大卒)사무총장
- 브라질지부 沈載鳳(64년 師大卒)회장

-지부의 그동안 중점 사업을 비롯한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靑一: 밴쿠버지부의 중점사업으로는 장학사업을 첫째 들 수 있으며, 둘째 관악상 수상 선정사업, 셋째 간담회를 통한 동문 상호간의 생활정보교환과 뉴스레터를 통한 동문들의 근황 및 소식교환 등입니다. 특히 98년부터 실시한 장학사업은 매년 2~3명의 동문 자녀나 비동문자녀에게 장학금 및 장학상장을 수여해오고 있으며, 관악상도 밴쿠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 및 비동문중에서 매년 2명의 수상자를 선정, 관악상패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4, 5월 2회에 걸쳐 친목간담회를 실시, 동문들의 상호 친목과 생활정보교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李在德: 재미동창회는 정확한 회원 명부를 유지, 동시에 미등록회원을 발굴하여 회원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website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보의 질을 발전시켜, 회원들이 소속감과 긍지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수한 회원들의 자질을 모아 지역사회와 모교 그리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Brain Bank의 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奉光玉: 일본지부는 우선 명부 작성과 인원 파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 주일대사관 동문의 도움을 얻어 점차 회원 소재를 파악,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지부는 연 2회 春秋친선교류 골프대

회를 개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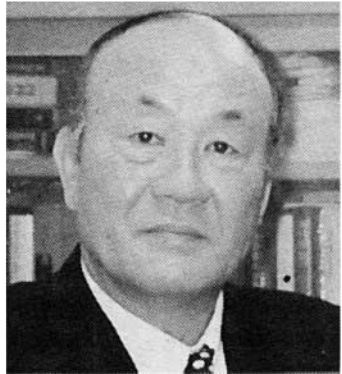
申載暢: 89년 창립된 프랑스 파리지부는 모교에 뜻깊은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10년간 기금을 모금, 지난 95년 모교 개교 50주년을 기하여 모교의 북측 입구에 동문들에게 낯익은 프랑스의 「마로니에」 세그루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裴相璟: 매년 두 번의 골프행사과 연말 송년 모임을 가져오고 있는 인도네시아지부는 지난 97년 11월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 동문 및 동문가족들

등 단과대별 단합모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각 단과대학 간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吳興祚: 남가주지부는 매월 회보를 통해 동문간의 상호 친목 증진과 각 분야의 전문지식 전달 등을 꾀하고 있으며, 음악회를 통한 모임과 종교를 통한 선교모임, 취미를 위주로 한 테니스 및 골프 등의 모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모임은 매년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1백50여명의 동문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沈載鳳: 매월 친목을 위한 모



奉光玉 회장



裴相璟 회장

나 가치관이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생활을 통해 느낀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동창회 운영 중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李在德: 경제활동의 목표를 1차 의식주, 2차 자녀교육, 3차 문화생활이라고 한다면, 본국의 동문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주 동문들은 2차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창회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吳興祚: 한국인의 가족중심적 문화와 미국인의 개인중심적 문

친목모임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모교·조국 위해 공헌할 지부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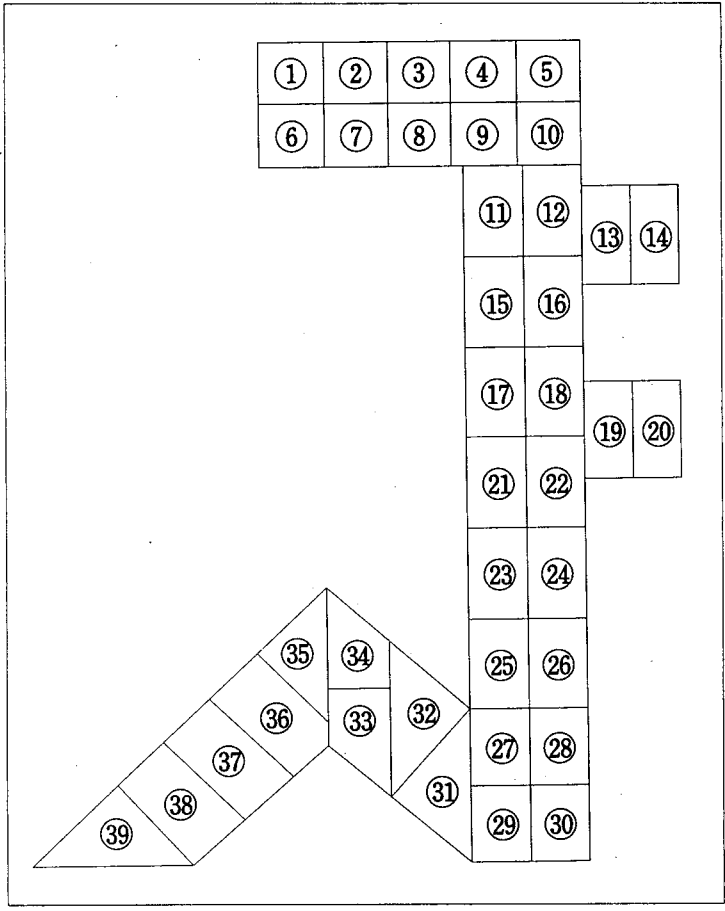
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지부가 잘 유지되고 있는 주요인을 들면 공대, 상대, 문리대, 법대, 사대 등 단과대별로 두달에 한번씩 골프와 가족 동반 모임을 갖는

임을 항상 가져오고 있으며, 경축 및 문화행사를 수회 가지며 동문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적 관습이

화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해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이젠 개정된 이민법의 혜택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표지사진 설명〉 ①미네소타 朱永墩(58년 農大卒) ②남가주 吳興祚(61년 齒大卒) ③뉴욕 宋寬鎬(64년 醫大卒) ④시애틀 崔俊漢(64년 農大卒) ⑤달라스 崔輝基(65년 工大卒) ⑥오레곤 金相淳(74년 商大卒) ⑦샌디에고 鄭慶和(76년 醫大卒) ⑧샌프란시스코 崔慶善(72년 農大卒) ⑨아리조나 吳玟煥(62년 工大卒) ⑩호주 멜버른 柳政子(64년 文理大卒) ⑪하트랜드 李校洛(59년 醫大卒) ⑫워싱턴D.C 李來源(62년 師大卒) ⑬스위스 全命濟(48년 文理大卒) ⑭인도네시아 裴相璟(61년 商大卒) ⑮캐나다 온타리오 許宗守(59년 商大卒) ⑯브라질 沈載鳳(64년 師大卒) ⑰유타 韓成洋(69년 文理大卒) ⑱일본 奉光玉(58년 齒大卒) ⑲하와이 崔致德(63년 法大卒) ⑳네덜란드 林基滿(58년 文理大卒) ㉑뉴잉글랜드 姜慶植(59년 文理大卒) ㉒펜실바니아 姜錫鎭(83년 自然大卒) ㉓태국 金錫鍵(55년 農大卒) ㉔일본 후쿠오카 手島東(39년 京城齒大卒) ㉕필라델피아 鄭應準(67년 商大卒) ㉖시카고 具璟會(65년 醫大卒) ㉗독일 프랑크푸르트 金春秋(61년 文理大卒) ㉘프랑스 파리 申載暢(64년 文理大卒) ㉙러시아 李仁浩(55년 文理大入) ㉚북경 金東震(70년 農大卒) ㉛말레이시아 趙泰植(80년 人文大卒) ㉜재미동창회 李丙俊(59년 商大卒) 명예회장 ㉝캐나다 밴쿠버 崔靑一(58년 文理大卒) ㉞휴스턴 金豐榮(72년 醫大卒) ㉟조지아 차홍昌(60년 文理大卒) ㊱오사카 全在紋(72년 大學院卒) ㊲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 ㊳캐나다 애드먼튼 李丙珉(55년 商大卒) ㊴오스트리아 全豐一(66년 工大卒) -기타 미개재 11개 지부는 회장직이 공석이거나 회보제작 기일내에 관련사진을 수령하지 못해 게재하지 못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崔 靑 -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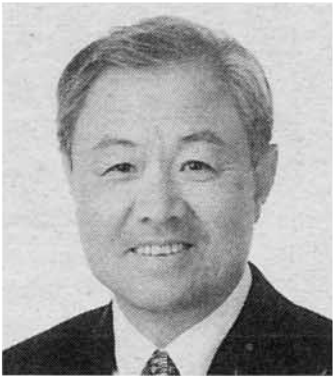
취득,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裴相璟: 요즘에는 해외 생활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고심한 분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오히려 영어 교육이나 대학 진학에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불어권의 종주국이라고는 하나, 외국인인 기를 펴고 사업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의 나라입니다. 한편 미국, 일본 등지와는 달리 이곳은 동문의 수가 적으며, 거주 동문 또한 공관이나 상사에 근무하는 30인을 제외하면, 불문학을 비롯하여 미술·음악분야를 공부하는 동문들이 대다수입니다.

崔靑: 이곳 직장생활을 통해 느낀 소감이라면 역시 비교적 정직하고 질서가 잡힌 사회에서, 성실하게 노력의 대가를 받아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교육제도의 혜택과 과외 체육훈련을 통해, 떼떳한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시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

奉光玉: 주로 일본지부는 주재원(상사원)으로 부임한 동문들이 회원으로 많이 있으며, 일상업무에 바쁜 관계로 동문 모임에 참석치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다양한 문화교류 등으로 21세기에는 좀더 많은 젊은이들, 특히 모교 동문들이 세계로 진출할 것이라



吳 興 祚 회장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지부 동창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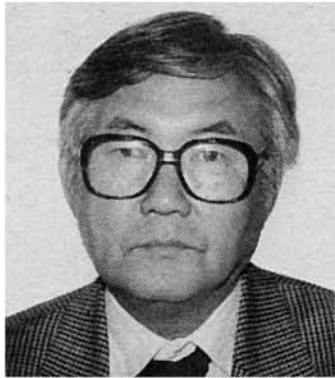
崔靑: 밴쿠버지역은 하이테크 계통의 취업문이 다른 분야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앞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후진 동문들에게 좋은 취업정보나 연구 및 기술을 교환하여 도움을 주고자하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한편 동문들의 취미활동을 통한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국악인 모임이나 포크송 그룹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沈載鳳: 어떤 지역이든지 처음 방문할 때는 먼저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부딪치는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지부는 산(生)경험을 통해, 새로이 브라질로 이민오는 동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奉光玉: 해외에 처음 부임하는 동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동창회내에 만들어 모든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애로사항이 가장 많으며, 점차 노력하여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申載暢: 현재 프랑스 파리지부는 지난 수년간 중지되었던



申 載 暢 회장

기금조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프랑스 대학과 모교간의 학문적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연구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동문들을 위한 안내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吳興祚: 남가주지부에 등록된 동문 수는 약 1천5백87명입니다.

나 학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창회와는 달리 항상 먼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보답의 뜻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이나 활동 또는 학업의 궁극 목표를 개인의 인격도야나 학문의 정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확실히 심어 주고 행할 수 있는 모교와 동창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裴相璟: 모교가 세계의 일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 변화해 가는 학문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며, 동창회는 무엇보다도 모교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창회보의 발간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국내외 모든 동문들을 연결시켜 주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奉光玉: 서울대총동창회와 모교 행사에 해외 동문들이 자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연 1회 정도 해외동문과 함께 하는 골프 친선교류회 등을 가졌으면 합니다.

崔靑: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지부 회장들의 총회 모임을 서울에서 한번쯤은 가졌으면 합니다. 이는 해외지부간의 결속과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



李 在 德 사무총장

니다.

沈載鳳: 이역 만리의 브라질 지부에 모교 동문의 넘치는 관심과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값진 서울대 동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모교 후배들과 본국의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申載暢: 우리 동문들은 남이 겪어본 쓰라림을 모르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 덕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남달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지식위주의 효율성 탐구에 너무 몰두, 인성이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잘나서 출세했다는 생각」은 금물이고, 우선은 동문들끼리 서로 돕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리더」임을 인식하여 사회의 동량이라는 사명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沈載鳳: 오랫동안 외국에서



매월 7천부를 발행하는 재미 동창회보

살았지만 조국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 주었으면 합니다.

崔靑: 현 국제화 시대의 선진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보급 받아 모든 분야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교 후배들의 해외 유학을 더욱 권장하고 장려했으면 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여 모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중심부에 서울대동창회관이 건립될 수 있는 후원을 구성, 해외지부 동창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裴相璟: 모교의 후학들이 서울대학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튼튼한 학문의 기초 위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일에 정진했으면 합니다. 한편 동문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沈 載 鳳 회장

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李在德: 현 사회가 원하는 가치 기준에만 따라가는 학생이 아닌 스스로 정립한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젊은이가 됐으면 합니다.

奉光玉: 자신의 입신출세에 관련되는 공부나 일만이 아닌 좀더 시야를 넓혀, 인간성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교 및 동창회에서 행사를 자주 열어, 해외거주 동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부연락처 8면 게재)

경험 토대로 동문의 든든한 자문역 해외에 지부 총괄할 회관건립 시급

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갈등 등에서 오는 불편함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동창회 운영의 애로점 가운데 하나는 새로 이주해온 동문들이 이곳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동문서주하는 탓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창회 행사나 모임에 참여도가 다소 낮습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많습니다.

沈載鳳: 언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브라질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좀더 철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다른 대학의 동창회에 비해 우리 모교 동문들은 비교적 잘 모이고 있으나, 후배동문들의 브라질 이민이 적은 탓인지 숫자가 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裴相璟: 해외 동창회지부를 단순한 친목모임의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교민사회의 다른 어느 모임보다도 모범적이고 건전한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진출하는 모교 동문들에게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놓고 상담에 응해주는 집안의 어른과 같은 든든한 자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在德: 동창회는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분야의 힘을 저축하고 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미동창회는 우수한 두뇌들의 경험과 연구실적들을 홍보해주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퇴직 후에도 이들이 낭비되지 않고 모교나 동문간에는 물론 세계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는 구심점이 될

다. 하지만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동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문의 수를 더욱 넓혀 가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모교 음대 출신 동문들의 협조를 얻어 북미주 5~6개 도시의 순회 공연을 주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모교와 동창회는 해외동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에 바라는 내용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李在德: 우리 동문들은 대학 교육을 국가의 도움으로 마쳤거

〈해외 49개 지부 연락처 : 회장, 총무〉

지 부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재미동창회	李 丙 俊 명 예 회 장	9615 S. Norwalk Blvd. #B Santafe Springs CA90670	310-375-3531
	吳 仁 錫 회	28 Baldwin Farms North Greenwich CT06831	203-625-0561
	李 龍 洛 수 석 부 회 장	1010 W. Lonnquist Blvd. Mt. Prospect, IL 60056	847-577-5911
	李 在 德 사 무 총 장	318 Bergen Boulevard Palisades Park, NJ07650	201-944-4949
남가주	吳 興 祥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213-382-8205
뉴욕	宋 寬 鎬	459 Phillips Hill Road. New City New York 10956	914-634-2491
미네소타	朱 永 墩	655 Norell Ave. N. Stillwater, MN55082	651-436-5642
시카고	具 璟 會	37W 638 York Lane, Elgin, IL60123	847-608-7879
샌디에고	鄭 慶 和	10354 Barrywood Way, San Diego CA92131	619-271-8483
샌프란시스코	崔 慶 善	2040 Main ST, #102 SANTA CLARA, CA95050	408-554-0134
워싱턴DC	李 來 源	9512 Woody Lane Great Falls, Virginia 22066	703-759-6250
시애틀	崔 俊 漢	11018 59th Ave. West, Mukilteo WA98275	425-742-5753
조지아	朴 喜 昌	2460 Honeycomb Way. Duluth GA30136	770-497-9713
아리조나	吳 玊 煥	11340 N. Palmetto Dunes Ave. Oro Valley AZ85737	520-297-9231
달라스	崔 輝 基	3208 Melanie Lane. Plano, TX75023	972-618-3850
휴스턴	金 豐 榮	11310 Claymore, Houston TX77024	713-973-2550
하와이	崔 致 德	1600 Kapiolani Blvd. Suite1224 Honolulu Hawaii 96814	808-955-5071
오레곤	金 相 淳	2117SW Sunset Blvd. Hwy #21 Beaverton, OR97005	503-293-0566
유타	韓 成 洋	3396 S. Paige Circle, S.L.C. UT84109	801-485-2065
필라델피아	鄭 惠 準	1120 Romsey Drive Blue Bell PA19422	215-646-8830
뉴잉글랜드	姜 慶 植	1 Memorial Road, Providence. R. I. 02906	401-274-2044
하트랜드	李 校 洛	9800 Glenwood, Overland Park KS66212	913-383-3529
펜실바니아	姜 錫 鑽	530 Gerald Street, State College, PA16801	814-867-1903
밴쿠버	崔 靑 一	4463 Glencanyon Dr. North Vancouver BC V7N 4B4	604-983-2812
온타리오	許 宗 守	5 Vyner Rd. Willowdale. ONT M2L 2N3	416-445-7619
애드몬튼	李 丙 斌	#219, 2911-109St. Admontion, AB. T6J 509	780-437-7439
아르헨티나	李 用 熙	AV. Carabobo 1698, CAP. Buenos Aires	114-605-5728
브라질	沈 載 鳳	R. Ponte Alta No103 Aclimaco SAO PAULO	11-572-4695
네덜란드	林 基 滿	Alpenroos 10, 2317 EX Leiden	71-521-4614
노르웨이	梁 世 勳	Korean Embassy In Norway PO Box 7100 Homannsbyen, 0306 OSL0 3	2-255-2018
덴마크	金 昌 鎬	Burmeister & Wain Shipdesign A/S PO Box 2122, Refshaie-oen. DK-1015 Copenhagen K	31-57-1133
독일	金 春 秋	Kaiserstrabe 72 60329 Frankfurt am Main	69-23-6517
스위스	全 命 濟	18B, Chemin de la Fontaine 1292 Chambesy	22-758-1128
스웨덴	吳 麟 錫	Slattervagen 65 135 42 Tyreso	8-712-7467
영국	韓 大 宇	Hampers Croft The Ridgeway, Oxhott Surrey, KT22 0LJ	171-426-3610
오스트리아	全 豐 一	Alfred Wegenergasse 1-4 1190 Vienna	1-20-602-2750
이탈리아	金 忠 烈	Strada 4, Pal, A3, 20090 Assago-Milanofiori(M1)	2-5751-1337
프랑스	申 載 暢	59, Bd Pasteur, 75015 Paris	1-4322-6644
핀란드	朴 錫 佑	Vuoriharjun Tie 16 02340 Espoo	9-802-4438
러시아	李 仁 浩	UI. Alexeya Tolstiova 14, Moscow, Russian Federation.	095-230-3850
멜버른	柳 政 子	105 Schotters Road, Mernda, Vic, 3754	3-9717-3708
시드니	鄭 文 基	29 Marcella St North Epping NSW2121	2-9312-4864
일본	奉 光 玉	東京都 新宿區 新小川町 8-16	3-5261-4354
오사카	全 在 紋	大阪府河內長野市南が丘 8-12	721-65-6309
후쿠오카	手 島 東	福岡市博多區南本町 1丁目 3-10	092-581-4907
북경	金 東 震	北京市 建國門內大街 18號 恒基中心 辦公樓 一座 1706室	10-6538-1561
상해	朴 基 憲	浙江省 嘉興經濟開發區 東方路 韓泰(嘉興)輪胎 有限公司	573-220-5088
말레이시아	趙 泰 植	6A-C, Impiana On The Waterfront Condominium, No1, Tasik Ampang, Jalan Ulu Klang, 68000Ampang, Selangor	603-452-5842
인도네시아	裴 相 璟	Kintamani Apt. #1202 Jl.Prapanca, Kebayoran Baru, Jakarta	21-719-0562
태국	金 錫 鍵	UN Building, Rajdamnern Avenue Bangkok 10200	662-251-0843
필리핀	李 鳳 瑞	Asian Development Bank 6 ADB Ave, Mandaluyong, Manila	2-632-6015
싱가포르	尹 熙 盛 총 무	80 Raffles Place, #16-20 UOB Plaza, Singapore 048624 KEXIM International Ltd, Office	536-0717

저금리시대 안정성장형 財테크,
바로 人才테크입니다



충동창회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특지장학금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기부하거나 출연(현금 및 현물)해 주신 재원으로 출연자의 특지장학회를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충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면 특지장학회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權 如 鉉 作



「얼굴(FACE)」 90.9×72.7cm, Mixed Media, 1995.

- △85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87년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88~98년 개인전 18회
- △91년 한국현대미술전
△95년 한·중·일 교감미술제
△현재 원광대 교수, 모교 강사



서울시립미술관 劉俊相관장

「휴식」이 아닌 「여가」공간으로 조성



1988년 전시전용 공간으로 문을 연 이래 서울시 문화관광국 공무원이 운영해온 서울시립미술관이 개관 11년만에 초대관장을 맞이했다. 지난 6월 1일자로 취임한 劉俊相(54년 商大卒)동문을 만나 보았다.

『2000년말 내지 2001년초에 덕수궁 옆 옛 대법원 자리로 미술관을 이전하여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옛 대법원 건물은 1927년에 세워진 건물이라 설계 및 예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개축 또는 신축할 예정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새 미술관 건립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 출신으로 전시기획자 및 미술평론가로 활동한 계기는.

『중학교 시절 미술반장을 맡으면서 많은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51년 모교 미대 회화과에 합격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등록을 못하고 상과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릴 수 없어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 경영학 공부는 제쳐놓고 화랑 및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 공부에 열중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립현대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제2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본부장 등 경력이 화려한데.

『97년 9월에 개최된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미술축제로서 국내보다는 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몸담으면서는 관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미술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미술관은 일제시대때 지은 건물이라서 구조역학상 지하공간을 따로 낼 수가 없기 때

문에 미술관의 은행 격인 수장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로 여류화가 千鏡子씨와 故 김정숙씨의 기증작품이 있지만, 좋은 소장품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 확보, 학예연구실의 독립성과 학예연구원 보충, 기획전시 마련 등 숙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 전산매체를 총 동원한 데이터뱅크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전시업무를 담당할 큐레이터를 뽑아 학예연구기능이 중심에 서도록 할 계획이며,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의 기호를 가늠해 계몽·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계획의 토대위에 일반시민을 위한 미술관에서 점차 미술가를 위한 미술관으로 변화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시민 관람객의 참여유도 방안은.

『미술관은 「休息」공간이 아닌 「餘暇」공간입니다. 남는 시간이 생긴 시민들의 정서, 감성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 우에노 동경도미술관이나 후쿠오카(九州)시립미술관 등을 참고로 하여 눈으로 보는 것이 듣거나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금요시민 미술강좌」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變)

평생 모은 3억원 모교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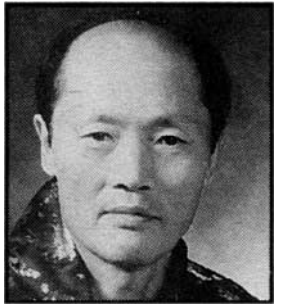
캐나다 밴쿠버 故 吳平煥동문

지난해 9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암으로 숨진 故 吳平煥(65년 農大卒)동문의 유가족이 최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吳동문이 평생 직장생활로 모은 3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감동을 주고있다.

吳동문은 1940년대 전형적인 가난한 농사꾼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나 고교시절 뛰어난 학업성적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들보다 1년 늦게 모교 농대 농화학과에 입학했다.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더 이상의 학업은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75년 캐나다로 이민한 吳동문은 생전에 자신이 못 다한 학업을 아쉬워하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형편 때문에 할 수 없는 후배들을 도와야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왔다고 한다.

지난 2월 13일 모교를 방문한 미망인 吳英玉여사는



『우수한 학생들을 키우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남편처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교 농생대 金浩卓학장은 지난 4월 28일 이 기금을 「吳平煥 獎學金」으로 명명하고 吳英玉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고인의 뜻에 따라 내년부터 농생대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美)



모교 金浩卓(右)학장이 吳동문의 미망인 吳英玉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 정

수 상

▲尹漢植(55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지난 6월 12일 중앙고 개교 91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중앙인상」을 받음.

▲崔鍾玉(58년 師大卒·이화여고 교장)=지난 6월 10일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申允植(59년 文理大卒·하나로통신 사장)=지난 6월 16일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8회 「다산 경영상」을 받음.

▲金運昌(63년 工大卒·(주)한국연수 사장)=지난 5월 28일 제7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맑은물 대상」을 받음.

▲吳世榮(65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초문학상」을 받음.

▲高哲煥(6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5월 31일 제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金松子(69년 行大院卒·서울지방노동위원장)=최근 국제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가 수여하는 「여성지위」를 받음.

▲金潤澤(70년 經大院卒·대광홍산 회장·양천장학회 이사장)=최근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세계한민족문화축제에서 「평화상 무궁화장 대상」을 받음.

▲吳治南(71년 工大卒·대림수산 대표)=지난 5월 31일 제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음.

▲黃奎永(7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6월 7일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1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에서 「정보문화기술포상」을 받음.

▲金宗鉉(76년 工大卒·한국선급 기술연구소장)=지난 5월 31일 제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음.

▲李光炯(78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6월 7일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1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에서 「정보문화진흥상」을 받음.

▲鄭仁植(78년 工大卒·정인갤러리 대표)=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하는 제3회 「올해의 평등부부상」을 받음.

이동·선임

▲申世吉(61년 商大卒·前삼성물산 구주본사 사장)=지난 5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임됨.

▲崔吉洙(61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5월 17일 제7대 충북대 병원장에 선임됨.

▲崔洙秉(63년 商大卒·前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6월 11일 한국전력 사장에 선임됨.

▲吳光亨(64년 商大卒·前한일은행 전무)=지난 5월 29일 한일리스 금융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文昌(65년 文理大卒·인하대 교수)=최근 한국어의 미학회 회장에 선임됨.

▲金正吉(65년 司大院卒·변호사)=지난 6월 8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됨.

▲卜成海(66년 農大卒·생명과학연구원 단백질조정팀장)=지난 5월 18일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에 선임됨.

▲金明子(66년 文理大卒·숙명여대 교수)=지난 6월 24일 환경부장관에 임명됨.

▲愼承男(66년 法大卒·前법무부 검찰국장)=지난 6월 6일 대검찰청 차장에 선임됨.

▲任彙潤(67년 法大卒·대검 강령부장)=지난 6월 6일 서울지검장에 선임됨.

▲金秀哲(67년 保大院卒·김수철성형외과 원장)=지난 6월 5일 계명문화대학 99년도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 학술연구발표회 및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됨.

▲姜正一(68년 農大卒·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지난 5월 18일 제8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盧義來(68년 農大卒·산림청 임목육종부장)=지난 6월 10일 임업연구원에 선임됨.

▲姜光男(68년 文理大卒·KIST 광기술연구센터 소장)=지난 5월 1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李容根(69년 行大院卒·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지난 5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奇浚(70년 工大卒·前대림산업 전무)=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 통합추진본부장에 선임됨.

▲朴虎君(70년 文理大卒·KIST 생체과학연구부장)=지난 5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원장에 선임됨.

▲南東益(70년 工大卒·건교부 대도시광역교통기획단장)=지난 6월 16일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됨.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6월 4일 동아시아 비전그룹 한국측 위원에 선임됨.

▲李魯昌(70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대표)=지난 6월 21일 삼일회계법인 부회장에 선임됨.

▲金顯宇(70년 醫大卒·단국대 교수)=최근 의과대학 학장에 선임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지난 5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임명됨.

▲李德周(71년 文理大卒·前 대통령 공보비서관)=지난 6월 11일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선임됨.

▲李鍾宣(71년 文理大卒·한국

박물관건축학회 부회장)=지난 6월 1일 서울시립박물관 초대관장에 취임함.

▲金鍾昶(71년 商大卒·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지난 6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됨.

▲延元泳(71년 商大卒·대통령정책1비서관)=지난 6월 1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됨.

▲李永檜(71년 商大卒·세계은행 대리이사)=최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에 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사장·本會副會長)=지난 6월 16일 세계신문협회(WAN) 본부 이사에 선출됨.

▲曹承顯(72년 法大卒·前동원투자신탁운용 사장)=지난 5월 25일 정기주총회에서 교보증권 사장에 선임됨.

▲朴奉欽(72년 商大卒·기획예산처 이사관)=지난 6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내정됨.

▲趙宇鉉(72년 行大院卒·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지난 6월 3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선임됨.

▲李京浩(73년 法大卒·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임명됨.

▲鄭馨民(70년 美大入·모교 교수)=최근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에 임명됨.

▲尹熙昌(74년 法大卒·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지난 6월 3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선임됨.

▲陳永郁(74년 商大卒·前재정경제부 부이사관)=지난 5월 29일 한화증권 사장에 선임됨.

▲申洵雨(74년 行大院卒·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지난 5월 2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에 재선임됨.

▲文龍子(74년 大學院卒·서울시 의원·서울강남구의사협의회

(11면에 계속)

반도체 설계자동화 최우수상 받아
慶宗旻·林竣緒동문



慶宗旻



林竣緒

반도체 설계 자동화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설계자동화 학술대회(DAC)」에서 한국인 과학자로는 최초로 「99년도 최우수 논문상」을 한국과학기술원의 慶宗旻(75년 工大卒)교수와 LG종합기술원의 林竣緒(91년 工大卒)선임연구원이 함께 수상했다.

「심층 서브마이크론 데이터경로 설계에서 연결선 신호간의 상호영향을 줄이는 법」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林동문이 91년부터 KAIST에서 慶동문에게 박사학위논문 지도를 받으면

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산물로 두사람이 공동 저술했다. 지난 6월 2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세계 각국 1만5천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6차 DAC 국제학술대회 개최식에 참석한 林동문은 시상식과 함께 이번 최우수 논문을 비롯한 총 4편의 반도체 설계논문을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는 최신 반도체관련 논문들과 2백30개의 최신 반도체설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반도체 설계기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美)

(10면에 이어)

장)=최근 서울시 의정회 부의장에 취임함.

▲徐凡錫(75년 師大卒·모교 사무국장)=지난 6월 3일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에 선임됨.

▲朴泰鎬(75년 商大卒·모교 교수)=지난 5월 18일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됨.

▲安炅台(75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부대표)=지난 6월 21일 삼일회계법인 대표에 선임됨.

▲李駿商(76년 人文大卒·고려대 교수)=지난 6월 16일 국립보건의료원에 임명됨.

▲金載栢(77년 經營大卒·SBS관리본부 부본부장)=최근 SBS사장특별보좌역에 선임됨.

▲金會瑄(78년 法大卒·서울지검 부장검사)=지난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됨.

▲金石基(79년 經營大卒·중앙증권 상임고문)=지난 5월 18일 중앙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선임됨.

▲金容漢(86년 行大院卒·산림청 시유림지 원 국장)=지난 6월 10일 산림청 차장에 선임됨.

▲黃秀雄(86년 行大院卒·대구지방국세청장)=최근 국세청 차장에 선임됨.

▲金祐鎔(7기 AMP·前광복회 부회장)=지난 5월 28일 열린 한국광복군 동지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임됨.

▲鄭八道(1기 AIP·홍인 회장·AIP 동 창 회장)=최근 서울특별시 체육회 역도연맹 제9대 회장에 선출됨.

▲李昶世(6기 AIP·LG실트론 사장)=지난 5월 29일 인덕대에서 열린 한국보전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朴正求(38기 ACAD·보건복지부 보건자원관리국장)=지난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선임됨.

▲朴奉泰(40기 ACAD·경찰청 방범국장)=7월 2일 개청한 울산경찰청장에 임명됨.

▲李教鎔(40기 ACAD·정통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지난 6월 3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설 치추진단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白文基(50년 美大卒·又誠 金鍾瑛기념사업회 회장·冠岳會 理事)=지난 6월 12일 가나아트센터에서 모교 崔



鍾泰(58년 美大卒) 명예교수가 저술한 「한국미술가 제1권-나의 스승 金鍾瑛」(가나아트刊) 출판 기념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갤러리우덕에서



朴淑姬·朴香淑·金芝希·丁玉蘭·崔榮子·李貞淑등과 함께 「New Material Work Exhibition」전을 가짐.

▲金濬浩(56년 法大卒·코리아 투어 여행사 회장)=지난 5월 18일 합남인친목회에서 「21세기 미래로 가는



한국」이란 주제로 강연함.

▲孫槿贊(58년 醫大卒·동수병원 상임고문)=최근 단국의대 소아과학교실과 국립의료원 소아과 동문회가 각각 마련한 정년기념 수상집 「석정수상」봉헌식을 가짐.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대 교수)=지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니스 GALERIE ROBERT

FOUR에서 초대전을 가짐.

▲趙三珍(62년 音大卒·건국대 교수)=지난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피아노 음악 축제」를 개최함.



▲李秉鵬(6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교수)=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맥관연맹 제13회 학술대회 참석, 4편의 논문을 발표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6월 24일 일산 소재 연구원 대강당에서 「위생매립지

건설 및 비위생매립지 복원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안보통일 연구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6월 18일 한국 언론재단에서 「제2기 내각의 경제정책-구조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



찬간담회를 가짐.

▲李吉鍾(64년 美大卒·춘천교대 교수)=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동예맥화랑에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李吉鍾 彫刻展」을 가짐.



▲李正洙(64년 美大卒·강원대 교수)=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如岩 李正洙 繪畫展」을 가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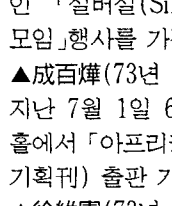
▲朴永寬(64년 醫大卒·부천세종병원장)=최근 롯데월드 호텔에서 사회감기념 논제집 헌정식을 가짐.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산부인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한 「산부인과학」을 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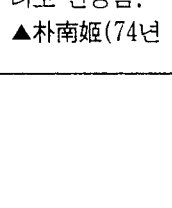
▲南大極(67년 文理大卒·삼육대 교수)=최근 책 피니건박사의 「신약성서의 고고학 I, II」(민음사刊)를 번역 출간함.



▲黃仁惠(69년 美大卒·화가)=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나화랑에서 「황인혜展」을 가짐.



▲張基賢(71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신경방사선학회에 참석, 연재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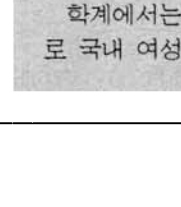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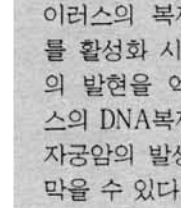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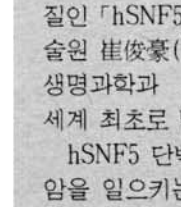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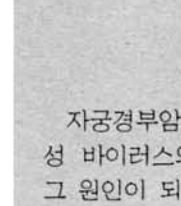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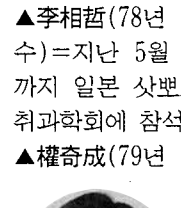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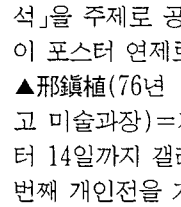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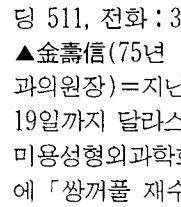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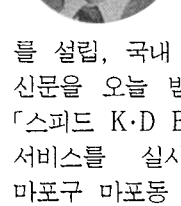
▲禹鍾仁(72년 醫大卒·한국치매협회장·모교 교수)=지난 6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치매대비운동의 일환인 「실버실(Silver Seal)알림모임」행사를 가짐.

▲成百燁(73년 師大卒·시인)=지난 7월 1일 63빌딩 르네상스홀에서 「아프리카 환상곡」(은혜기획刊) 출판 기념회를 가짐.

▲徐維憲(73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Who's Who」에서 주관한 「새 세기의 전세계 500명 지도자」에 선정됨.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대표)=최근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위크지에서 아시아 지역 산업·금융분야 밀레니엄리더로 선정됨.

▲朴南姬(74년 美大卒·경북대



교수)=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대구 봉성갤러리에서 「朴南姬 作品展」을 가짐.

▲金基道(72년 新大院入·국회의원)=최근 방송이벤트 및 선거마케팅을 지원하는 한국미디어정치연구회를 설립, 국내 최초로 다음날

신문을 오늘 받아볼 수 있는 「스피드 K·D Brief」라는 뉴스 서비스를 실시함.(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511, 전화: 3272-2002)

▲金壽信(75년 醫大卒·성형외과의원장)=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미용성형외과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쌍꺼풀 재수술 302례의 분석」을 주제로 공동 저술한 논문이 포스터 연제로 채택됨.

▲邢鎮植(76년 美大卒·서울예고 미술과장)=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5번째 개인전을 가짐.

▲李相哲(78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삿포르에서 열린 마취과학회에 참석, 강연을 펼침.

▲權奇成(79년 行大院卒·레미콘산업연합회 부회장)=최근 레미콘연합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 업계 발전방향에 대해 대토론회를 가짐.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 화가)=최근 동양화 전공 자료는 드물게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주최의

Freeman Fellowship Competition(작업실과 제작비 및 유명작가 교류 지원프로그램)에서 Freeman Alternate로 선정됨.

▲金鉉淑(83년 音大卒·인천교대 강사)=지난 7월 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金相喆(86년 音大卒·KBS

국악관현악단)동문의 장구 반주와 盧福暎(87년 音大卒·국립국악원 연주단원)동문의 대금에 맞춰 가야금독주회를 가짐.

▲金吉洙(85년 音大卒·부산교대 교수)=지난 6월 30일 부산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독창회를 가짐.

▲李應濤(86년 法大卒·前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LawQuest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1806호, 전화: 551-7077)

▲權廷善(89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6월 2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라모,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崔載援(96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6월 13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등을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李恒圭(28기 ACAD·한국선금회 회장)=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롯데호텔에서 10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국제선금연합회 평의회를 개최함

▲金莊坤(37기 ACAD·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6월 1일 카자흐스탄공화국 고려인 교포 45명을 초청, 고리원전 견학과 간담회를 가짐.

(정리=李美連 기자)

세계 최초 자궁경부암 원인 규명

KAIST 崔俊豪교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악성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과 그 원인이 되는 새로운 단백질인 「hSNF5」가 한국과학기술원 崔俊豪(77년 自然大卒) 생명과학과 교수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hSNF5 단백질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파피로마바이러스의 복제에 관여해 이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이의 발현을 억제하면 바이러스의 DNA복제가 억제되므로 자궁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로 국내 여성들에게 가장 많

이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발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항암제 및 백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崔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영국의 저명한 과학기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됐다.

(美)



을지재단 朴永夏회장

6·25때 의대 결사대 조직, 평생 봉사활동

“의료 취약지구엔 종합병원 건립이 꿈”

지난 4월 7일 제27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朴永夏(50년 醫大卒·을지재단 회장)동문은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무료 진료를 비롯한 의료봉사활동과 후진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의료계의 원로이다.

1959년 을지로에 처음 산부인과를 개원한 朴동문은 병원이 날로 번창함에 따라 67년 의료계에서는 최초로 개인병원을 공익법인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으로 전환했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는 朴동문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동란이 터지던 1950년도 초에 朴동문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전쟁이 나자 朴동문은 당시 동기생이었던 李丙允(50년 醫大卒·명륜신경정신과의원장)·朴在一(50년 醫大卒·前교과 교수)·金弼舜(50년 醫大卒)동문 등을 비롯해 후배 재학생 34명과 함께 의대 결사대를 조직, 미아리 전투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전투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육탄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부상

병이 속출해서 뜬눈으로 밤을 새며 치료를 해도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총을 들고 직접 격전을 치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죽어가던 우리 병사들과 혈투고 굶주림에 쓰러져간 일반 서민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속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무료진료 활동을 펼쳐오다가 지난 94년부터는 1백여명의 을지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을지의료봉사단과 함께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朴동문의 이웃사랑은 여전히 계속돼 지난 98년 여름 폭우로 큰 수해가 났을 때 병원 주변 하수구에서 물이 차 올라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진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유명한 프로레슬러였던 김일선수가 일본에서 외롭게 투병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94년부터 을지병원 개입병실에 무료 입원토록 조치해 건강을 돌봐주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친의 뜻을 받들어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朴동문은 1983년 서울보건대학을 인수하여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개편, 1996년 을지의과대를 설립했다. 또한 매년 2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출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IMF로 학교와 병원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1백억원을 무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의사로서 무언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평소 제 소망입니다. 현재 대전 둔산지역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내의 의료 취약지구엔 더욱 많은 병원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할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을지의과대학을 의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종합대학으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美)



朴永夏(가운데)동문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동문기업



탐방

③6 재우전자(주)

국내 전기기술·설계분야 독보적 업체로 급성장

직원 70%가 연구원...「전자장 해석나라」최초 개발

새로운 천년에 접어드는 길목인 지금 세계는 첨단분야의 패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재도약의 견인차로서, 또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주자로 벤처기업의 활약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첨단분야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인 재우전자(주)가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재우전자는 지난 89년 설립, 유한요소법(시뮬레이션 작업의 전체 영역을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자계해석 소프트웨어인 Flux2D/3D를 기반으로, 전기기기해석 및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재우전자는 6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전자장해석나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유한요소법을 이용,



黃殷植 사장

전자기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정전장, 전자기장, 교류자장에 관한 모든 현상을 초보자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 최초 윈도우즈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출시한 「전자장해석나라」는 과학기술부로부터 「국산신기술마크(KT)」를 획득했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신 소프트웨어 상품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재우전자는 전기기술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구축, 전기기술자료를 DB화하여 전기취업 정보와 전기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기술 종합정보시스템(ETIS)을 개발, 완료했다.

또한 「ETEST(문제출제 및 평가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인터넷 Application 구축 등의 분야와 산학협동 연구 프로젝트, 시스템컨설팅 및 설계프로젝트, 각급 교육기관, 정부관공서 등의 관련분야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최첨단의 신기술을 선도해오고 있다.

직원의 70% 이상이 연구원인 재우전자에는 현재 젊음과 패기로 정보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黃殷植(77년 工大卒)사장을 비롯해 鄭率喜(69년 工大卒)연구소장, 申仲哲(89년 工大卒)인터넷사업본부장 등의 동문이 기술개발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설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이 분야의 연구를 기피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10여년간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중』이라고 黃사장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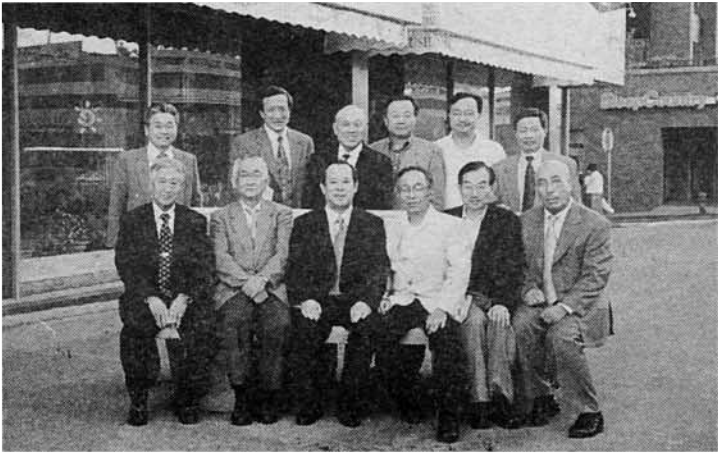
재우전자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내 전기기술분야의 활성화와 21세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信)



99년 소프트웨어전시회 참가, 좌로부터 네번째 黃사장.

캐나다 밴쿠버지부

鄭宗澤상임부회장 초청간담회



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崔靑一회장
캐나다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崔靑一)는 지난 5월 29일 서울관 로얄식당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동창회와의 결속과 모교 발전에 관한 관심을 놓고 토의를 가졌다.
한편 同會는 최근 99년도 첫

밴쿠버지부 관악골프대회를 가졌다.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朴河一(64년 文理大卒)동문이 NET우승을 차지했으며, 李基萬(62년 法大卒)동문이 GLOSS우승을 거머쥔다.

부천시지부

총회서 공로·표창·축하패 증정

부천시지부동창회(회장 朴敬鎬)는 지난 6월 11일 중동숯불갈비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同會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鄭行元(63년 文理大卒·세광세라믹 부사장)·金一泰(75년 藥大卒·경성약국 대표)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石世助(54년 獸醫大卒·시온고교 교장)·金興植(63년 藥大卒·터미널약국 대표)동문과 부천 약대동문회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경기도 치과의사회장에

당선된 金聖又(75년 齒大卒·김성우치과의원장)동문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부

음대 관악합주단 공연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李乃均)는 지난 6월 23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합주단 초청연주회」를 가졌다.

광주·전남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열띤 성황을 이뤘다.

의과대학

제32대 임원진 47명 새로 구성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6월 15일 모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99년도 동기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李회장은 회무활성화와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 사업에 각 동기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모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제32

대 첫 임원회의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각 실무 부서에 차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새로이 개정했으며, 기존 함춘회관건립 추진위원회에 기획, 총무, 사업, 간행, 홍보, 학술 등의 각 소관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이 구성된 임원은 모두 47명으로 명예회장에 姜信浩·

동창회관 사무실 임대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이 좋은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임대평수 : 60평
문의 : 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李正相동문, 부회장에 朴熙伯·朴鳳崙동문, 각 소관별 부회장에 朴孃實(간행)·李奎恒(섭외)·沈英輔(기획)·池三峰(홍보)·金鍾信(총무)·李珍鏞(학술)·鄭鶴永(지방)·金承陸(군)·裴永燮(해외)동문 등이 선임됐다.

지난 5월 16일에는 의대 테니스코트에서 제21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 A조의 張永吉·李太政동문과 B조의 元仲喜·林弘喆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경영대학원

金英大수석부회장 선임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禹德昶)는 지난 6월 3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9대 첫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하여 수석 부회장에 金英大(65년 法大卒·70년 經大院卒·대성그룹 부회장)동문을 선임했으며, 李晚相(67년卒·前대영볼트 대표)동문을 포함한 상임이사 70명과 柳章奎(67년卒·삼안상사 대표)동문을 포함한 이사 1백24명을 새로 선

임했다.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기별동기회의 결성 및 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동창회보 여름호를 오는 7월 25일 발간·배포하기로 했다.

〈美〉

약학대학

尹光洙·鄭大仁동문 바둑우승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6월 8일 서초동 「일품기원」에서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참가한 동문들의 기력에 따라 1급이상인 A조와 2급 이하인 B조로 나뉘 예선과 결선을 치렀다.

리그전으로 치러진 예선에서 각조를 다시 2개조로 나뉘 개별조의 1, 2위가 각각 크로스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A조 우승은 尹光洙동문, B조에서는 鄭大仁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尹光洙(73년卒), 준우승: 朴昇東(66년卒), 3위: 孔錫模(79년卒), 4위: 金在王(79년卒)

B조- 우승: 鄭大仁(71년卒), 준우승: 李炯鐵(74년卒), 3위: 李喆準(72년卒), 4위: 朴聖鎭(73년卒)

농화학과

李賢秀회장 선출



농화학과동창회(회장 趙炳春)는 지난 5월 30일 모교 사색의동산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賢秀(삼양제넥스 부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토목공학과

郭永驤회장 추대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鄭然世)는 지난 6월 6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99년도 춘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郭永驤(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특히 31동기회의 추진사업인 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재학생 해외건설현장 견학 및 배낭여행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同會 동창회보를 연 4회(계간) 발간기로 협의했다.

同會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 첫째주 일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어교육과

金德起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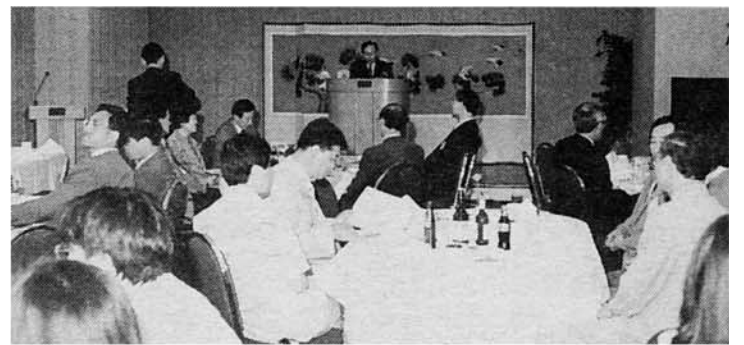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丁胃變)는 지난 6월 22일 역삼동 소재 상록회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德起(고려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朴容(서일시스템 대표)·李進緣(변호사)·李益煥(연세대 교수)·朴源泳(서울고 교감)·郭昌信(충청북도 부교육감)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에 高東俊(한성과학고 교사)·申文秀(모교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지리학과

새 회장에 金榮一동문 뽑아



지리학과동창회(회장 康勝廉)는 지난 6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李廷滿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제16차 태평양 지역학회(PRSCO)에 대한 안내 및 2000년 서울 세계지리학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康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 여러분들의 同會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어

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榮一(젼코리아 사장)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는 그대로 유임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李明海(前감사원 사무총장)동문이 「후배에게 남기는 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 전원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법대 8회

입학 49주년 기념 행사 펼쳐



법대8동기회(회장 李相運)는 지난 6월 23일 서강대 부근 「거구장」에서 모교 입학 49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83동문회」로 명명되기도 하는 同會의 회원들은 단기 4283년에 모교에 입학, 당시 6·25전쟁으로 인해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우정과 만남이 49년을 이어오는 동안 더욱 두텁고 단단

해짐을 느꼈다』고 말하며 『근력은 다소 낮아졌으나 세월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柳錫烈(62년 師大卒·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동문이 「최근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동문들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독어교육과

첫 바둑·축구 동호인 모임 가져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趙永孝)는 최근 서초동 소재 일품기원과 모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제1회 동호회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둑과 축구 경기로 실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굿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이 참석,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바둑대회에서는 柳明夏(투와이교역 대표)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姜昌求(충남대

교수)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축구경기는 두 팀이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기상·대기과학과

朴淳雄회장 선출

기상·대기과학과동창회(회장 李光浩)는 지난 6월 12일 모교 교수회관 제4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淳雄(모교 교수)동문을 선출했다.

(信)



AIP동창회

조찬 세미나 개최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八道)는 지난 6월 2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모교 공대 李長茂학장, 李恩日·姜泰普교수를

비롯 1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총회 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행정자치부 金杞載장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 방향」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훈올회

제20회 작품전에 73명 참여

모교 미대 76년도 이전 졸업생들의 모임인 훈올회(회장 金芝烈)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20회 훈올회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73명의 동문이 참여, 각자의 전공을 살린 작품을 출품했다.

同會는 매년 테마전과 격년으로 각자의 전공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연례행사로서의 전시회가 아닌 항상 새롭고 참신한 작품을 선보이기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孫文子총무의 작품전이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신세계 가나아트에서 열렸다.

법대 25회 산악회

1박 2일로 지리산 다녀와



법대25회 산악회(회장 李佑喆)는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지리산 등산대회를 열었다.

정령치를 출발, 만복대와 상위마을을 경유한 同會는 23일

화엄사와 일상사 등을 견학하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법대 25회 산악회는 매월 2회 청계산 등산을 해오고 있으며, 연 1회 1박 2일의 등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모교소식

金學主교수 등 19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최근 金學主교수 등 19명을 명예교수로 새로이 추대했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學主(중문학)교수, 姜萬植(생물학)교수, 金應瑞(기계항공공학)교수, 羅瑢俊(응용생물화학)교수, 趙鏞涉(응용생물화학)교수, 李啓瑚(식품공학)교수, 安建鏞(조경학)교수, 宋海均(농업교육)교수, 崔義淳(조소)교수, 李旼成(지구과학교육)교수, 成在基(수의학)교수, 李俊燮(수의학)교수, 金洛斗(약학)교수, 徐廷勳(치의학)교수, 劉東洙(치의학)교수, 金正根(보건학)교수, 鄭文植(보건학)교수, 池亨浚(천연물과학연구소)교수, 韓秉勳(천연물과학연구소)교수.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6월 25일 99년 「자랑스러운

공대인賞」 수상자로 李慶鍾(59년 工大卒·독일 브라운쉬바이크 공대 석좌교수)동문을 선정, 시상했다.

李동문은 독일 아헨공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과 미국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독일프라즈마 공학회 회장, 유럽공동플라즈마 표면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표면공학 및 플라즈마재료 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의과대학

학사 편입생 뽑기로

의과대학(학장 李正相)은 지난 5월 7일 대학 4년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학사 편입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교 졸업생으로서 의대가 지정한 물리·화학·생물·인간과학 개론·의학개론 등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00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비, 내년 1학기부터 5~10명 가량의 학사 편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燮)

서울대학교가 열려 있습니다

모교가 동문 및 일반시민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21세
대상으로 생활문화 등 교육강좌
기의 질 높은 삶을 지향하기 위

해 연중 계속해서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가 열려 있습니다」를 운영하고 있다.

1.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연 락 처
화요음악회	월 2회	문화관 소극장	학생 및 교직원	백청심 첼로독주회, 오페라공연, 금호현악 4중주 등	음대 880-7905
수요교양강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박물관 강당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인도불교조각과 한국, 고려청자의 이해, 금강산 그림의 역사 등	박물관 880-8096
자료로 보는 우리 전통문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규장각 강당	학생 및 교직원	전통시대의 문자생활, 실물로 본 한국의 고지도, 의궤와 조선의 왕실문화 등	규장각 880-5671 880-5468
천문대 공개행사	연중 월 1회	천문대	지역 주민	우주의 끝, 별하나 나 하나 등	천문학과 880-6684
시대를 앞서가는 열린 생활문화	주 1회	박물관 강당	일반 시민	부모교육,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사 지침, 세계화시대의 소비자 등	생활과학대학 880-6801
건강 21세기를 위한 국민건강 교육 사업	연중 2~6회	교내, 관악구 민회관 등	학생, 교직원 및 관악 주민	건강한 성과 결혼,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습관, 건강과 음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저축 등	의대 760-2560
대학시설 탐방 프로그램	수시 시행	연구소, 규장관 및 박물관	시설 탐방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대학연구소, 규장각, 박물관, 천문대 등	연구진흥과 880-5196
서남강좌	연 1회	문화관 소강당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물리학 분야 등	연구진흥과 880-5163

2. 21세기 꿈나무를 위한 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연 락 처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견학	월 4회	동물병원	유치원생	애완동물 설명, 비디오 상영, 야외전시 동물 견학 등	동물병원 880-8661
동문·교직원·관악구 주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캠프	방학기간 중 2회 실시 (1박2일)	생활과학대학 부속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박물관 방문, 악기전시실 방문, 조각공원 방문, 별자리 관찰 등	생활과학대학 880-5765
동문·교직원·관악구 주민 자녀를 위한 토요일창작교실	여름방학 1회, 겨울방학 2회, 토요일 오후 2시~5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미술활동, 동극놀이활동, 동화짓기 등	생활과학대학 880-5765
과학영재교육센터	주말과 방학기간 이용	강의실, 전산실 등	1·2차 선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 등	조미숙 880-8834
청소년을 위한 자연과학 공개강좌	매년 1회	문화관 대강당	청소년 및 일반인	99년 자연과학 그 천년의 오딧세이-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며	자연과학대학 880-8126
초·중학생을 위한 스포츠교실	하계방학중 5일간	관악구 소재 초·중등학교	초·중등학생	체력진단 및 기초기능 테스트, 기초 기술에 대한 이론강의, 간이 경기 및 정식게임 등	사범대학 880-7792

3. 외국인 근로자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연 락 처
라파엘 클리닉	격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혜화동 동성교교 강당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식량공급과 인권상담 등	의과대학 740-8225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체육교실	매주 2회		초등학생	질서, 놀이, 노래, 운동 등	의과대학 880-7790

문화

新刊

■韓國의 肖像 (잊혀진 전쟁에 대한 회상) —朴恒培 譯



한국항공 의학협회 명예회장인 朴恒培 (58년 醫大卒·한양대 명예교수) 동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美·육·해·공군과 해병대 소속 2백1명이 직접 쓴 수기와 陣中詩를 번역, 출간했다.
(동영사 (0344-907-7482) 판·값15,000원)

■무서운, 멋진 신세계 —金炳翼 著



문학평론가 金炳翼 (61년 文理大卒·문학과 지성사 대표) 동문이 2천년대라는 환상적인 시대와 그 문명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등을 담은 산문을 펴냈다. 핸드폰이 불러온 문화, 자본·과학 복합체가 지배하는 사회 등 28편의 글을 실었다. (문학과 지성사 판·값6,500원)

■두 아내 —鄭昭盛 著

중견 소설가 鄭昭盛 (69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 동문이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6·25전쟁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고 다시 남한에서 결혼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른 장편소설(上·下)을 출간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오랜 연구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된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사투리가 돋보인다. (찬샘판·각권 값7,500원)

■암 알아야 이긴다 —白南善 著



원자력병원 白南善 (73년 醫大卒) 원장이 난치병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위해 각종 암의 예방법과 최신 치료법을 소개했다.

더불어 한약처방·민간요법을 수록했다. (홍신문화사 판·값9,000원)

■이야기로 풀어보는 21세기와 환경

—金鍾五·孫富順·鄭用澤 共著



동남보건대학 金鍾五 (82년 保大院卒) 교수,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실 鄭用澤 (82년 保大院卒) 실장, 순천향대 孫富順 (86년 保大院卒) 교수 등 3명이 지구환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었다. 엘니뇨와 라니냐, 공기·물·폐기물·바다와 환경이야기 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광출판사 판·값10,000원) (雙)

동문의 소리

세계 화합 이끌 역량 발휘하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영광과 번영의 시대와 어둡고 좌절의 시대들이 서로 교차하지만 이 또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과거의 성공이 모래성 같고 내실이 부족했던 이유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소홀

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천년에는 다시 출발하자.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되지만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점점 좁아져 한 울타리 안에 살게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을 내다보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넓은 마음과 기

단순한 지식보다 창조성 중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꿰지 않는 정보와 지식 그 자체는 단순한 생활 필수품이지 특별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을 가공 생성하는 능력 즉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John Kao 교수는 창조성이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늦은 밤 즉흥 재즈 연주회에서처럼 절제된 무질서의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아마추어들의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한 소절의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 음악가들이 쏟는 땀과 정열, 투입되는 무수한 시간과 노력, 철저히 계산된 무질서와 그속에서 즉흥적으로 창조해내는 재즈 음악의 개념을 조직에 옮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해 관리자나 경영층은 기존의 「통제자」역할에서 탈피하여 창의성을 찾아내고 현실화하는 「해방자」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창조성은 「나무 앞에 서서 꽃이 필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재즈 연주자들이 악보를 버리고 즉흥연주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조직도 명령, 지시, 보고 등의 악보를 모두 버려야만 신선하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孔善杓(84년 大學院卒)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장



량을 닦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야겠다.

우리가 새천년에 평화와 화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 이해 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작은 일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희망의 새천년을 영광의 새천년으로 만들 준비를 하여야겠다. 盧炳宜(65년 獸醫大卒) 경북 경산대 교수

인터넷 자유게시판 www.snua.or.kr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윤우중(66년 醫大卒)
capitis@enteract.com.

심심할 때엔 한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web page에 둘러보곤 하는데 오늘은 우연히 모교에 둘러 보았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는 등록을 못한다. 동창회에 와 보았더니 임원검색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또 필수적이다.

서울대 동문들이 많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데 학교나 동창회가 재외 동문에 대하여 배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국에 사는 우리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면 좋겠다.

회비납부 슬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99년 4월 12일~4월 23일·一般: 99년 3월 31일~4월 20일〉

회 장 단

▲부회장 姜信浩=1백만원
▲부회장 趙南煜=1백만원
▲부회장 張翼龍=1백만원
▲부회장 卞圭七=1백만원
▲부회장 李廷武=50만원
▲부회장 崔秉烈=50만원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관 약 회

▲이 사 金在哲=30만원

상 임 이 사

▲林光洙 공대동창회장=20만원
▲李信子 미대동창회장=20만원
▲張禮準 상대동창회장=20만원
▲李佑宰 수의대동창회장=20만원
▲李禮植 약대동창회장=20만원
▲李濟薰 신대원동창회장=20만원
▲鄭八道 AIP동창회장=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김민석

◇家政大學

▲조순옥

◇看護大學

▲백해자 ▲엄미란 ▲이춘자

◇工科大學

▲계 찬 ▲김도훈 ▲김선동 ▲김선홍
▲김성중 ▲김주영 ▲김진만 ▲김형벽
▲박우병 ▲서진근 ▲신승근 ▲신현주
▲심해경 ▲오계환 ▲윤충중 ▲이동춘
▲이상호 ▲이종훈 ▲이창건 ▲임 회
▲임병주 ▲장진양 ▲정상구 ▲정연세
▲조남혁 ▲조양대 ▲최관영 ▲최영덕
▲최홍민 ▲한방교 ▲허 진 ▲허진규
▲황이선

◇農科大學

▲김동암 ▲박영인 ▲박재룡 ▲이보식
▲정운환

◇文理科大學

▲노재봉 ▲문병암 ▲박상태 ▲박희주
▲이광희 ▲이상옥 ▲이승운 ▲이정운
▲이장복 ▲장희익 ▲정효섭 ▲천양철
▲최 환 ▲한영성 ▲홍영대

◇美術大學

▲박숙희 ▲주민숙

◇法科大學

▲강순걸 ▲강우영 ▲곽정출 ▲김성산

▲김인환 ▲김일권 ▲김정국 ▲김종환
▲김진억 ▲문형식 ▲박영준 ▲박용도
▲박재윤 ▲박종렬 ▲박희태 ▲송광수
▲송재룡 ▲안명기 ▲윤덕순 ▲이동명
▲이병호 ▲이선우 ▲이원호 ▲이인상
▲정국수 ▲정용인 ▲정형근 ▲최두형
▲최송화 ▲최운상 ▲최인기 ▲하종선
▲홍성우 ▲황의만 ▲황활용

◇師範大學

▲김영진 ▲박봉배 ▲박창수 ▲유덕준
▲하광언

◇商科大學

▲권오균 ▲김경덕 ▲김선태 ▲김중서
▲김태태 ▲박만옥 ▲신명호 ▲우두현
▲유우성 ▲이만식 ▲이병식 ▲이상경
▲이상선 ▲이연재 ▲이익치 ▲이정복
▲이진방 ▲이학갑 ▲이창철 ▲이해옥
▲전정구 ▲정상진 ▲조대연 ▲지환영
▲최경국 ▲허성용 ▲황학학

◇獸醫科大學

▲이재철

◇藥學大學

▲박만기 ▲박종갑 ▲이필광 ▲조내규
▲진 강 ▲허 백 ▲황준수

◇音樂大學

▲김정자 ▲이종국

◇醫科大學

▲권이혁 ▲김동은 ▲김찬영 ▲박승무
▲박한철 ▲변상현 ▲손광현 ▲신명희
▲신현정 ▲안동현 ▲오경규 ▲윤정철
▲윤택구 ▲이동훈 ▲이민호 ▲이수철
▲조경환 ▲조명하 ▲추광철 ▲하재동
▲한만동 ▲황규엽

◇齒科大學

▲강효식 ▲김용운 ▲김현풍 ▲박찬유
▲서정기 ▲성재현 ▲유영세 ▲이준섭
▲정광현 ▲조성환

◇大學院

▲이종운

◇經營大學院

▲이찬하

◇保健大學院

▲정영채

◇行政大學院

▲김성규 ▲박용덕 ▲전준형 ▲정규영

일 반

◇人文大學

▲권영기 ▲권형돈 ▲김 영 ▲김기만
▲김동철 ▲김순호 ▲김영민 ▲김영현
▲김진란 ▲김광숙 ▲문대영 ▲박영태
▲박용수 ▲변성수 ▲변원일 ▲송성섭

▲신병식 ▲신정현 ▲안병용 ▲오병갑
▲오창식 ▲유환식 ▲윤찬원 ▲이강근
▲이경하 ▲이기현 ▲이세영 ▲이영숙
▲이유경 ▲이은규 ▲이인성 ▲이종수
▲이한목 ▲이흥우 ▲임영규 ▲임준규
▲정해경 ▲조성은 ▲조운선 ▲조인식
▲최승환 ▲최대영 ▲홍성범 ▲황현길

◇社會科學大學

▲강병일 ▲구성재 ▲권용발 ▲김대진
▲김동선 ▲김동주 ▲김병룡 ▲김병부
▲김봉중 ▲김부성 ▲김상완 ▲김진기
▲김선창 ▲김연진 ▲김영일 ▲김영진
▲김용숙 ▲김원호 ▲김재천 ▲김재형
▲김준환 ▲김진석 ▲김진근 ▲김태근
▲김태식 ▲김필호 ▲남준희 ▲노정식
▲류성환 ▲박경국 ▲박근섭 ▲박노익
▲박영세 ▲박재홍 ▲박준서 ▲박현규
▲방창식 ▲부지영 ▲서석인 ▲서영진
▲설대수 ▲성은식 ▲송경모 ▲송민경
▲송성욱 ▲송수환 ▲신석하 ▲신은호
▲신철식 ▲신현규 ▲신현국 ▲안동희
▲안영일 ▲안재원 ▲안창모 ▲양우진
▲엄대종 ▲엄현택 ▲연승호 ▲오재영
▲윤운성 ▲우병훈 ▲유지열 ▲윤계근
▲이 석 ▲이대창 ▲이동섭 ▲이두식
▲이상록 ▲이영식 ▲이용길 ▲이용섭
▲이운형 ▲이재협 ▲이정진 ▲이종철
▲이철원 ▲이호준 ▲임병수 ▲장규홍
▲장두영 ▲장세진 ▲장원영 ▲장호욱
▲전범진 ▲전홍찬 ▲정석배 ▲정연석
▲정우현 ▲정원호 ▲정의선 ▲정진성
▲조대연 ▲조석근 ▲조석우 ▲조용웅
▲조인식 ▲차준철 ▲최광해 ▲최낙민
▲최병준 ▲최수용 ▲최영환 ▲최홍운
▲한상덕 ▲황성훈

◇自然科學大學

▲강병국 ▲김규중 ▲김상길 ▲김주영
▲김창환 ▲김한철 ▲남찬호 ▲문정원
▲박성욱 ▲박희진 ▲서의훈 ▲송 운
▲안수현 ▲양혜경 ▲이동일 ▲이봉환
▲이인근 ▲이재원 ▲이정호 ▲이태림
▲이한용 ▲이현주 ▲임병철 ▲임인성
▲전동오 ▲전용호 ▲정광철 ▲정기영
▲정동주 ▲조화재 ▲최원식 ▲최형규
▲현운정 ▲홍경환 ▲홍성출 ▲황성주
▲황준목

◇家政大學

▲고영숙 ▲김경자 ▲김광옥 ▲김진호
▲김초일 ▲김관정 ▲박성연 ▲박성희
▲송연숙 ▲송운주 ▲신은철 ▲안윤진
▲오명숙 ▲유정자 ▲윤혜원 ▲이신영
▲이영자 ▲이영희 ▲이중희 ▲이화숙
▲이호진 ▲임은순 ▲임인순 ▲전영숙
▲전임호 ▲정해자 ▲조명숙 ▲조영옥
▲조유현 ▲조진희 ▲지금수 ▲차진아
▲최순옥 ▲최영경 ▲한준순 ▲한호경
▲황인경

◇看護大學

▲강채원 ▲김복순 ▲박상원 ▲박인례
▲박주라 ▲박혜숙 ▲서문자 ▲신순애
▲양혜숙 ▲이기춘 ▲이성은 ▲이연숙

▲이영현 ▲이추월 ▲임숙빈 ▲조동란
▲조명숙 ▲최경숙 ▲함명립 ▲황금미

◇經營大學

▲권오성 ▲김기영 ▲김도련 ▲김문철
▲김상욱 ▲김영권 ▲김영모 ▲김영상
▲김영주 ▲김용건 ▲김용남 ▲김재일
▲김홍섭 ▲남기명 ▲남중수 ▲노석균
▲민남식 ▲박남욱 ▲박재연 ▲박찬수
▲박창수 ▲박태희 ▲박형봉 ▲박훈기
▲배경섭 ▲사진우 ▲손병규 ▲송초찬
▲신동환 ▲신선호 ▲신용삼 ▲안용수
▲양기봉 ▲오진환 ▲윤석현 ▲윤중수
▲윤택현 ▲이권철 ▲이대찬 ▲이승하
▲이원우 ▲이재영 ▲이종인 ▲이현우
▲이호창 ▲임종욱 ▲장병식 ▲장창호
▲정용재 ▲정용진 ▲조성문 ▲조의규
▲진형노 ▲최 혁 ▲최원일 ▲최종욱
▲최형립 ▲탁정욱 ▲한성규 ▲홍준모
▲황수연 ▲황진숙

◇工科大學

▲강경찬 ▲강대호 ▲강동식 ▲강명규
▲강봉돈 ▲강석립 ▲강세훈 ▲강순옥
▲강승목 ▲강영택 ▲강용식 ▲강원용
▲강인엽 ▲강호익 ▲강희대 ▲경신호
▲고 진 ▲고광철 ▲고대중 ▲고영범
▲고왕인 ▲고원룡 ▲공성일 ▲공영민
▲공인섭 ▲공일근 ▲공정훈 ▲곽동수
▲곽병현 ▲구경본 ▲구용희 ▲권기수
▲권동일 ▲권영각 ▲권우주 ▲권용석
▲권정만 ▲권창현 ▲권혁성 ▲권혁준
▲김 훈 ▲김경수 ▲김경희 ▲김관석
▲김광길 ▲김광모 ▲김광섭 ▲김광수
▲김광현 ▲김근섭 ▲김기현 ▲김남길
▲김남원 ▲김달수 ▲김대영 ▲김대정
▲김대하 ▲김동관 ▲김동기 ▲김동성
▲김동진 ▲김동훈 ▲김명호 ▲김문경
▲김병무 ▲김성철 ▲김성렬 ▲김성로
▲김성윤 ▲김성태 ▲김수홍 ▲김순일
▲김시근 ▲김신배 ▲김신원 ▲김신태
▲김인순 ▲김억조 ▲김영호 ▲김영국
▲김영기 ▲김영삼 ▲김영옥 ▲김영운
▲김영중 ▲김영천 ▲김영환 ▲김영희
▲김원수 ▲김용덕 ▲김용덕 ▲김용세
▲김용직 ▲김용희 ▲김원수 ▲김유환
▲김윤석 ▲김운환 ▲김은철 ▲김의석
▲김의수 ▲김인달 ▲김인동 ▲김인명
▲김인상 ▲김인영 ▲김인영 ▲김인태
▲김재섭 ▲김재수 ▲김재승 ▲김재영
▲김재탁 ▲김재현 ▲김재형 ▲김정호
▲김종민 ▲김종벽 ▲김종선 ▲김종식
▲김종은 ▲김종재 ▲김종현 ▲김종호
▲김종호 ▲김주민 ▲김주영 ▲김주철
▲김준래 ▲김준연 ▲김준연 ▲김지덕
▲김진규 ▲김진근 ▲김진무 ▲김진후
▲김찬중 ▲김창섭 ▲김천주 ▲김철순
▲김철화 ▲김춘자 ▲김충남 ▲김태성
▲김태한 ▲김태희 ▲김택중 ▲김택환
▲김평호 ▲김현중 ▲김형원 ▲김형민
▲김형수 ▲김형준 ▲김홍영 ▲김효원
▲나우현 ▲나인규 ▲나형용 ▲남광문
▲남국석 ▲남기동 ▲남승운 ▲남준우
▲남홍모 ▲노무섭 ▲노송근 ▲노일현
▲두승학 ▲류승문 ▲류영석 ▲류태수

▲류호준 ▲마석일 ▲문병수 ▲문순현
▲문영학 ▲문원모 ▲문정석 ▲문종규
▲문한규 ▲민상열 ▲민수홍 ▲민위식
▲박관호 ▲박광운 ▲박기웅 ▲박기철
▲박명준 ▲박민수 ▲박병중 ▲박봉철
▲박상준 ▲박상철 ▲박성현 ▲박순길
▲박승균 ▲박신규 ▲박여중 ▲박용운
▲박원규 ▲박원규 ▲박이관 ▲박장영
▲박재규 ▲박재룡 ▲박재현 ▲박정우
▲박정훈 ▲박준호 ▲박창근 ▲박태현
▲박형준 ▲박형호 ▲박호중 ▲박희춘
▲박희규 ▲방교원 ▲방국철 ▲방정섭
▲배시화 ▲배재영 ▲백경우 ▲백남성
▲백동현 ▲백영준 ▲백성기 ▲백승하
▲백영방 ▲백원석 ▲백학기 ▲백호봉
▲변재환 ▲서경석 ▲서규철 ▲서동운
▲서의석 ▲서전석 ▲서정선 ▲서현석
▲서희수 ▲설원희 ▲설원희 ▲설학인
▲성낙진 ▲성낙현 ▲소병훈 ▲손 원
▲손 훈 ▲손경업 ▲손석광 ▲손석기
▲손래수 ▲손호인 ▲송배원 ▲송승훈
▲송신현 ▲송희규 ▲신동현 ▲신순철
▲신승수 ▲신승원 ▲신양호 ▲신우성
▲신재철 ▲신재홍 ▲신창덕 ▲신태명
▲신태환 ▲신현목 ▲심복섭 ▲심운식
▲심풍수 ▲심홍주 ▲안도열 ▲안병의
▲안상록 ▲안성모 ▲안제성 ▲안홍섭
▲양상현 ▲양종식 ▲양정현 ▲여운승
▲여인갑 ▲여인철 ▲오남규 ▲오병욱
▲오세환 ▲오수경 ▲오승은 ▲오시영
▲오양섭 ▲오옥수 ▲오행식 ▲우진태
▲원성필 ▲유관섭 ▲유승빈 ▲유승후
▲유용주 ▲유용하 ▲유인봉 ▲유중희
▲윤규영 ▲윤명진 ▲윤성철 ▲윤석룡
▲윤여환 ▲윤익성 ▲윤철수 ▲윤대식
▲윤한석 ▲윤홍갑 ▲윤희태 ▲이강주
▲이건이 ▲이경근 ▲이경상 ▲이경원
▲이경훈 ▲이광배 ▲이교성 ▲이규철
▲이규설 ▲이기백 ▲이길형 ▲이동관
▲이두호 ▲이명규 ▲이문득 ▲이민식
▲이박일 ▲이범익 ▲이범록 ▲이범하
▲이봉주 ▲이삼무 ▲이상곤 ▲이상돈
▲이상로 ▲이상산 ▲이상우 ▲이상형
▲이상화 ▲이선우 ▲이성곤 ▲이성수
▲이성실 ▲이성원 ▲이성재 ▲이성환
▲이승기 ▲이승준 ▲이시명 ▲이진호
▲이영준 ▲이영철 ▲이예민 ▲이오재
▲이용선 ▲이원호 ▲이은재 ▲이억용
▲이익호 ▲이장무 ▲이재욱 ▲이재일
▲이재철 ▲이재홍 ▲이정균 ▲이정덕
▲이종남 ▲이종대 ▲이종현 ▲이종철
▲이종훈 ▲이주형 ▲이준원 ▲이준환
▲이종호 ▲이지영 ▲이진수 ▲이찬홍
▲이창규 ▲이철신 ▲이철우 ▲이충덕
▲이태형 ▲이택식 ▲이한배 ▲이해경
▲이해익 ▲이호경 ▲이호순 ▲이호진
▲이희발 ▲이희범 ▲인성남 ▲임경춘
▲임동수 ▲임상호 ▲임인건 ▲임인상
▲임정렬 ▲임준석 ▲임창우 ▲임재훈
▲임태원 ▲임태충 ▲임희규 ▲임현규
▲임희규 ▲임희빈 ▲장경선 ▲장동립
▲장영배 ▲장영식 ▲장우주 ▲장원갑
▲장원초 ▲장재익 ▲장준호 ▲장진호
▲장준수 ▲장종근 ▲장호진 ▲장홍규
▲전구현 ▲전범기 ▲전봉수 ▲전순명

▲강 건66 ▲강대홍55 ▲강정원57 ▲강정훈57
▲고광호69 ▲권정식49 ▲갈이룡89 ▲김기봉55
▲김숙자57 ▲김양근55 ▲김영린80 ▲김영호62
▲김인제69 ▲김재환72 ▲김정수52 ▲김정주63
▲김하진79 ▲김희균55 ▲김한주61 ▲김혜경90
▲김희자55 ▲김희배65 ▲남준경50 ▲박명호57

▲박신근⑦ ▲박정옥⑦ ▲박종호⑦ ▲박원원⑦
▲백기남⑦ ▲변은자⑦ ▲송문정⑦ ▲신현학⑦
▲신호균⑦ ▲심우원⑦ ▲안구원⑦ ▲오동환⑦
▲오영자⑦ ▲윤여상⑦ ▲윤영진⑦ ▲이강영⑦
▲이경식⑦ ▲이규환⑦ ▲이나경⑦ ▲이대희⑦
▲이삼수⑦ ▲이상모⑦ ▲이석만⑦ ▲이수민⑦
▲이숙경⑦ ▲이숙연⑦ ▲이승하⑦ ▲이승환⑦
▲이은방⑦ ▲이재양⑦ ▲이재철⑦ ▲이종성⑦
▲이필영⑦ ▲이한배⑦ ▲임상웅⑦ ▲임치주⑦
▲장덕기⑦ ▲장선미⑦ ▲장영주⑦ ▲정숙기⑦
▲정환수⑦ ▲조균형⑦ ▲조균형⑦ ▲조동희⑦
▲조병현⑦ ▲주길택⑦ ▲채병호⑦ ▲최명지⑦
▲최영자⑦ ▲최우석⑦ ▲최종갑⑦ ▲최진선⑦
▲추영구⑦ ▲한용필⑦ ▲홍순연⑦ ▲황선옥⑦
▲황영옥⑦

◇音樂大學

▲고원주⑦ ▲김동신⑦ ▲김동우⑦ ▲김명희⑦
▲김무영⑦ ▲김문자⑦ ▲김상원⑦ ▲김상철⑦
▲김새별⑦ ▲김소연⑦ ▲김영숙⑦ ▲김현숙⑦
▲김형규⑦ ▲김형섭⑦ ▲김홍승⑦ ▲김효순⑦
▲남수이⑦ ▲문명자⑦ ▲문재숙⑦ ▲박미정⑦
▲박영자⑦ ▲박인옥⑦ ▲박현선⑦ ▲박희준⑦
▲방미영⑦ ▲방영호⑦ ▲백의현⑦ ▲변종혁⑦
▲시공복수⑦ ▲성양자⑦ ▲송복자⑦ ▲송인길⑦
▲신계휴⑦ ▲신대철⑦ ▲신상호⑦ ▲인혜선⑦
▲양희정⑦ ▲염진섭⑦ ▲오유애⑦ ▲오진옥⑦
▲우시현⑦ ▲원유란⑦ ▲원이경⑦ ▲유현아⑦
▲유형직⑦ ▲윤성득⑦ ▲이경미⑦ ▲이경미⑦
▲이남옥⑦ ▲이동남⑦ ▲이서현⑦ ▲이선이⑦
▲이성만⑦ ▲이소영⑦ ▲이수철⑦ ▲이영숙⑦

▲이옥엽⑦ ▲이은호⑦ ▲이재민⑦ ▲이정순⑦
▲이종숙⑦ ▲이주원⑦ ▲이주희⑦ ▲이한돈⑦
▲이현우⑦ ▲이현자⑦ ▲임경희⑦ ▲임정선⑦
▲임종필⑦ ▲임희정⑦ ▲전민숙⑦ ▲전소영⑦
▲정유택⑦ ▲정혜주⑦ ▲정홍자⑦ ▲조기현⑦
▲조길자⑦ ▲조상현⑦ ▲조영임⑦ ▲조창연⑦
▲최구해⑦ ▲최수연⑦ ▲최영숙⑦ ▲최윤경⑦
▲최재원⑦ ▲최조웅⑦ ▲최해춘⑦ ▲허주희⑦
▲한기세⑦ ▲한명희⑦ ▲허성혜⑦ ▲홍지나⑦
▲황현정⑦ ▲황화자⑦

◇醫科大學

▲강수경⑦ ▲강홍모⑦ ▲고화중⑦ ▲국형철⑦
▲권기익⑦ ▲권영소⑦ ▲권영운⑦ ▲권희정⑦
▲김명석⑦ ▲김명아⑦ ▲김범용⑦ ▲김병수⑦
▲김봉석⑦ ▲김선원⑦ ▲김선대⑦ ▲김성근⑦
▲김성심⑦ ▲김세영⑦ ▲김소연⑦ ▲김영규⑦
▲김영덕⑦ ▲김우영⑦ ▲김정재⑦ ▲김종구⑦
▲김종수⑦ ▲김중근⑦ ▲김진호⑦ ▲김철규⑦
▲김충은⑦ ▲김충철⑦ ▲김필수⑦ ▲김한권⑦
▲김현규⑦ ▲김호성⑦ ▲남경건⑦ ▲노관택⑦
▲도상환⑦ ▲문명선⑦ ▲문영규⑦ ▲문재환⑦
▲문재구⑦ ▲박문희⑦ ▲박선재⑦ ▲박승철⑦
▲박용삼⑦ ▲박용수⑦ ▲박용원⑦ ▲박용일⑦
▲박우택⑦ ▲박이철⑦ ▲박인원⑦ ▲박재덕⑦
▲박종화⑦ ▲박종원⑦ ▲방진현⑦ ▲백은집⑦
▲서광륜⑦ ▲서재열⑦ ▲서철원⑦ ▲석상복⑦
▲성수현⑦ ▲소순호⑦ ▲손봉기⑦ ▲손창수⑦
▲송영옥⑦ ▲송인배⑦ ▲신원식⑦ ▲심상운⑦
▲안기주⑦ ▲안석환⑦ ▲안중호⑦ ▲염원호⑦
▲염태현⑦ ▲오용석⑦ ▲옥홍남⑦ ▲웅상길⑦

▲우영남⑦ ▲원종희⑦ ▲유 권⑦ ▲유왕성⑦
▲유재훈⑦ ▲유종근⑦ ▲윤병관⑦ ▲이 영⑦
▲이건용⑦ ▲이규동⑦ ▲이규주⑦ ▲이남수⑦
▲이대원⑦ ▲이동규⑦ ▲이명복⑦ ▲이무훈⑦
▲이병훈⑦ ▲이봉하⑦ ▲이상립⑦ ▲이상운⑦
▲이상일⑦ ▲이선철⑦ ▲이선호⑦ ▲이승훈⑦
▲이승휘⑦ ▲이용규⑦ ▲이원기⑦ ▲이윤호⑦
▲이재서⑦ ▲이재순⑦ ▲이재호⑦ ▲이종승⑦
▲이종욱⑦ ▲이주원⑦ ▲이중의⑦ ▲이지호⑦
▲이창연⑦ ▲이충원⑦ ▲이필립⑦ ▲이한보⑦
▲이혁표⑦ ▲이현무⑦ ▲이홍규⑦ ▲이호표⑦
▲이희자⑦ ▲임승운⑦ ▲임승재⑦ ▲장광환⑦
▲장명훈⑦ ▲장용주⑦ ▲장운삼⑦ ▲장학진⑦
▲전경호⑦ ▲전병훈⑦ ▲전성환⑦ ▲전재석⑦
▲전중희⑦ ▲전형식⑦ ▲정두용⑦ ▲정문성⑦
▲정민화⑦ ▲정연철⑦ ▲정요한⑦ ▲정용진⑦
▲정용진⑦ ▲정운재⑦ ▲정은미⑦ ▲정종희⑦
▲정진옥⑦ ▲정진호⑦ ▲정희연⑦ ▲조대운⑦
▲조성근⑦ ▲조성환⑦ ▲조용근⑦ ▲주규원⑦
▲주일중⑦ ▲주진수⑦ ▲지석신⑦ ▲지선규⑦
▲진호준⑦ ▲차건원⑦ ▲차월보⑦ ▲차인식⑦
▲최성준⑦ ▲최승순⑦ ▲최시운⑦ ▲최영길⑦
▲최익렬⑦ ▲최일형⑦ ▲최종성⑦ ▲한 현⑦
▲한기준⑦ ▲한달선⑦ ▲한덕호⑦ ▲한명현⑦
▲한에택⑦ ▲한정수⑦ ▲한천식⑦ ▲함정옥⑦
▲허 현⑦ ▲홍석근⑦ ▲홍성환⑦ ▲홍용우⑦
▲황대용⑦ ▲황의기⑦

◇齒科大學

▲강대준⑦ ▲강신구⑦ ▲강신우⑦ ▲강인희⑦
▲강호경⑦ ▲곽현화⑦ ▲권오근⑦ ▲권오민⑦
▲권택중⑦ ▲기창덕⑦ ▲김 현⑦ ▲김경남⑦
▲김광현⑦ ▲김기수⑦ ▲김명기⑦ ▲김명득⑦
▲김명영⑦ ▲김병준⑦ ▲김봉이⑦ ▲김상철⑦
▲김성룡⑦ ▲김순기⑦ ▲김시웅⑦ ▲김영규⑦
▲김영수⑦ ▲김옥화⑦ ▲김유진⑦ ▲김은희⑦
▲김진범⑦ ▲김지희⑦ ▲김진명⑦ ▲김천식⑦
▲김택근⑦ ▲김효순⑦ ▲김훈재⑦ ▲노지섭⑦
▲류준근⑦ ▲문명용⑦ ▲문승욱⑦ ▲문혁수⑦
▲민기주⑦ ▲민병무⑦ ▲박경정⑦ ▲박경준⑦
▲박기용⑦ ▲박기호⑦ ▲박명섭⑦ ▲박명훈⑦
▲박성득⑦ ▲박수훈⑦ ▲박용한⑦ ▲박재하⑦
▲박준근⑦ ▲박태선⑦ ▲박희준⑦ ▲방수남⑦
▲백선호⑦ ▲서명우⑦ ▲서성규⑦ ▲석창인⑦
▲성철제⑦ ▲손오영⑦ ▲송세진⑦ ▲송재용⑦
▲송정보⑦ ▲신 현⑦ ▲신문창⑦ ▲신춘식⑦
▲심연택⑦ ▲안상규⑦ ▲안종경⑦ ▲안창영⑦
▲안효일⑦ ▲안희용⑦ ▲양유식⑦ ▲여종환⑦
▲오근성⑦ ▲오인식⑦ ▲오태식⑦ ▲왕상현⑦
▲우선형⑦ ▲우진오⑦ ▲원문정⑦ ▲유기환⑦
▲유세창⑦ ▲유주하⑦ ▲윤석대⑦ ▲윤수한⑦
▲윤정태⑦ ▲윤철민⑦ ▲윤훈기⑦ ▲이건수⑦
▲이기승⑦ ▲이기택⑦ ▲이대관⑦ ▲이덕근⑦
▲이동주⑦ ▲이병운⑦ ▲이봉재⑦ ▲이상필⑦
▲이상현⑦ ▲이석우⑦ ▲이선재⑦ ▲이선형⑦
▲이수길⑦ ▲이순규⑦ ▲이영립⑦ ▲이영훈⑦
▲이원철⑦ ▲이정훈⑦ ▲이정운⑦ ▲이정훈⑦
▲이종도⑦ ▲이창현⑦ ▲이창형⑦ ▲이희범⑦
▲임달수⑦ ▲임종호⑦ ▲임진용⑦ ▲임태재⑦
▲장기신⑦ ▲장영일⑦ ▲장은하⑦ ▲전영섭⑦
▲정대현⑦ ▲정영원⑦ ▲정진용⑦ ▲정태연⑦
▲정희태⑦ ▲제갈선⑦ ▲조시형⑦ ▲조영진⑦
▲조영환⑦ ▲조일제⑦ ▲조재익⑦ ▲주미희⑦
▲최동률⑦ ▲최봉섭⑦ ▲최상원⑦ ▲최성용⑦
▲최정식⑦ ▲최종석⑦ ▲택이현⑦ ▲허해근⑦
▲한광수⑦ ▲한병소⑦ ▲한상옥⑦ ▲한태원⑦
▲허남기⑦ ▲허현도⑦ ▲현재민⑦ ▲홍성준⑦
▲황 경⑦ ▲황성명⑦ ▲황영구⑦ ▲황영무⑦
▲황영재⑦ ▲황인서⑦ ▲황정일⑦

◇大學院

▲강규영⑦ ▲고재홍⑦ ▲권상직⑦ ▲김동진⑦
▲김동철⑦ ▲김병문⑦ ▲김성근⑦ ▲김성배⑦
▲김영현⑦ ▲김익근⑦ ▲김인홍⑦ ▲김정호⑦
▲김종락⑦ ▲김진양⑦ ▲남세진⑦ ▲민상렬⑦

▲박성배⑦ ▲박성호⑦ ▲배명진⑦ ▲백승용⑦
▲안영섭⑦ ▲안호준⑦ ▲양일석⑦ ▲오문성⑦
▲원상봉⑦ ▲유광호⑦ ▲유봉노⑦ ▲윤경현⑦
▲이 준⑦ ▲이중호⑦ ▲임일택⑦ ▲전성환⑦
▲정복동⑦ ▲조진형⑦ ▲조현래⑦ ▲최준영⑦
▲한상룡⑦ ▲한정호⑦

◇經營大學院

▲김보민⑦ ▲김일란⑦ ▲김태영⑦ ▲박원봉⑦
▲박정원⑦ ▲송운화⑦ ▲양해경⑦ ▲이정부⑦
▲이춘홍⑦ ▲장영기⑦ ▲전우영⑦ ▲차운석⑦

◇教育大學院

▲변정숙⑦

◇保健大學院

▲김상옥⑦ ▲김숙자⑦ ▲김종민⑦ ▲민병천⑦
▲박명운⑦ ▲서인선⑦ ▲송선대⑦ ▲윤기은⑦
▲이두호⑦ ▲이민희⑦ ▲이순남⑦ ▲이형진⑦
▲정문호⑦ ▲정효순⑦ ▲조유정⑦ ▲최진석⑦

◇司法大學院

▲박인수⑦ ▲송정호⑦ ▲전도영⑦ ▲조무재⑦
▲허정만⑦

◇新聞大學院

▲김희옥⑦ ▲노재성⑦ ▲목정균⑦ ▲유일연⑦
▲황영일⑦

◇行政大學院

▲강운원⑦ ▲공천오⑦ ▲권기성⑦ ▲김경섭⑦
▲김구현⑦ ▲김동호⑦ ▲서일수⑦ ▲신현수⑦
▲유동재⑦ ▲이동훈⑦ ▲이성기⑦ ▲이원우⑦
▲이지언⑦ ▲정동준⑦ ▲최천근⑦

◇環境大學院

▲강덕원⑦ ▲권용수⑦ ▲민봉기⑦ ▲유춘수⑦
▲임영호⑦ ▲진광성⑦ ▲채승기⑦ ▲최갈대⑦
▲홍성표⑦

◇최고경영자과정

▲가갑손⑦ ▲고정용⑦ ▲구광길⑦ ▲권익부⑦
▲김 학⑦ ▲김광석⑦ ▲김광영⑦ ▲김기열⑦
▲김기택⑦ ▲김동열⑦ ▲김보현⑦ ▲김봉규⑦
▲김선홍⑦ ▲김성용⑦ ▲김성철⑦ ▲김세겸⑦
▲김승무⑦ ▲김영재⑦ ▲김영천⑦ ▲김용수⑦
▲김옥한⑦ ▲김정국⑦ ▲김주인⑦ ▲김준언⑦
▲김진섭⑦ ▲김창환⑦ ▲김천수⑦ ▲김학관⑦
▲김효조⑦ ▲남궁석⑦ ▲남대현⑦ ▲노재근⑦
▲도동환⑦ ▲문만수⑦ ▲문용식⑦ ▲박 석⑦
▲박달용⑦ ▲박병억⑦ ▲박병제⑦ ▲박상규⑦
▲박세환⑦ ▲박영숙⑦ ▲박영규⑦ ▲박용진⑦
▲박인철⑦ ▲박재용⑦ ▲박정재⑦ ▲박종형⑦
▲박해주⑦ ▲박현수⑦ ▲박희오⑦ ▲박희택⑦
▲배신호⑦ ▲백종민⑦ ▲변규섭⑦ ▲변자섭⑦
▲변종희⑦ ▲사문진⑦ ▲서 구⑦ ▲서진희⑦
▲성기호⑦ ▲손희주⑦ ▲송병순⑦ ▲송병진⑦
▲송양형⑦ ▲송언기⑦ ▲송철호⑦ ▲신말업⑦
▲신백용⑦ ▲신일범⑦ ▲신태범⑦ ▲심갑보⑦
▲심계진⑦ ▲심명규⑦ ▲안광우⑦ ▲안시환⑦
▲안정호⑦ ▲양성욱⑦ ▲염대용⑦ ▲유건수⑦
▲유도재⑦ ▲유삼남⑦ ▲유상욱⑦ ▲유한기⑦
▲윤경원⑦ ▲윤성민⑦ ▲윤종수⑦ ▲은승기⑦
▲이경봉⑦ ▲이경수⑦ ▲이기종⑦ ▲이민희⑦
▲이방수⑦ ▲이봉훈⑦ ▲이석범⑦ ▲이선종⑦
▲이성길⑦ ▲이승은⑦ ▲이연성⑦ ▲이영숙⑦
▲이영종⑦ ▲이용근⑦ ▲이원순⑦ ▲이윤근⑦
▲이윤재⑦ ▲이은선⑦ ▲이인영⑦ ▲이정훈⑦
▲이정희⑦ ▲이종아⑦ ▲이진선⑦ ▲이창호⑦
▲이채연⑦ ▲이태섭⑦ ▲이한규⑦ ▲이현섭⑦
▲이형필⑦ ▲이홍근⑦ ▲이희평⑦ ▲인형무⑦
▲임 연⑦ ▲임진출⑦ ▲임창섭⑦ ▲임충현⑦
▲정영근⑦ ▲전상기⑦ ▲전창열⑦ ▲전대성⑦
▲전현찬⑦ ▲정국성⑦ ▲정상봉⑦ ▲정성현⑦
▲정인영⑦ ▲정재성⑦ ▲정준근⑦ ▲조동현⑦

▲조두희⑦ ▲조병일⑦ ▲조시남⑦ ▲조영진⑦
▲조창진⑦ ▲주대홍⑦ ▲차석용⑦ ▲최기원⑦
▲최병택⑦ ▲최승주⑦ ▲최종욱⑦ ▲허재준⑦
▲허정우⑦ ▲한 수⑦ ▲한영길⑦ ▲한영철⑦
▲한우삼⑦ ▲홍완기⑦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득수⑦ ▲강민우⑦ ▲강신철⑦ ▲강인순⑦
▲고영학⑦ ▲고재하⑦ ▲권오석⑦ ▲김동섭⑦
▲김민수⑦ ▲김상모⑦ ▲김성길⑦ ▲김순태⑦
▲김영상⑦ ▲김정웅⑦ ▲김종훈⑦ ▲김학선⑦
▲맹홍우⑦ ▲문기수⑦ ▲박규영⑦ ▲박기상⑦
▲박병수⑦ ▲박운소⑦ ▲박종우⑦ ▲박형우⑦
▲박한기⑦ ▲백준기⑦ ▲서영복⑦ ▲손창근⑦
▲송수근⑦ ▲송한주⑦ ▲신길웅⑦ ▲신현교⑦
▲신희우⑦ ▲안병균⑦ ▲안승석⑦ ▲양재석⑦
▲이강덕⑦ ▲이근모⑦ ▲이금규⑦ ▲이민우⑦
▲이영우⑦ ▲이종호⑦ ▲이준각⑦ ▲이종기⑦
▲이창세⑦ ▲이충연⑦ ▲이해규⑦ ▲이현희⑦
▲이호진⑦ ▲이희창⑦ ▲이희평⑦ ▲임재룡⑦
▲장광호⑦ ▲장승순⑦ ▲전종운⑦ ▲정승일⑦
▲정영화⑦ ▲조시영⑦ ▲주영현⑦ ▲차동성⑦
▲최경하⑦ ▲최문규⑦ ▲최승철⑦ ▲최창식⑦
▲한문식⑦ ▲한상수⑦ ▲함학주⑦ ▲허정광⑦
▲현인주⑦

◇국가정책과정

▲강경보⑦ ▲강부자⑦ ▲강영식⑦ ▲권영해⑦
▲김기주⑦ ▲김동일⑦ ▲김병철⑦ ▲김상철⑦
▲김성배⑦ ▲김성순⑦ ▲김수중⑦ ▲김우연⑦
▲김우복⑦ ▲김의준⑦ ▲김재진⑦ ▲김종연⑦
▲김창목⑦ ▲김태원⑦ ▲김태환⑦ ▲김형복⑦
▲김현수⑦ ▲김형성⑦ ▲김호연⑦ ▲노재우⑦
▲노홍준⑦ ▲문병대⑦ ▲문장인⑦ ▲민경자⑦
▲민경환⑦ ▲박만운⑦ ▲박신광⑦ ▲박영무⑦
▲박영자⑦ ▲변지섭⑦ ▲서정만⑦ ▲성기용⑦
▲손정열⑦ ▲송영진⑦ ▲안영기⑦ ▲안영철⑦
▲오희영⑦ ▲우 성⑦ ▲유용근⑦ ▲유철호⑦
▲유홍모⑦ ▲유효일⑦ ▲윤기범⑦ ▲윤용인⑦
▲이강연⑦ ▲이경우⑦ ▲이길갑⑦ ▲이동호⑦
▲이문기⑦ ▲이병정⑦ ▲이상영⑦ ▲이영숙⑦
▲이재돈⑦ ▲이종형⑦ ▲이필우⑦ ▲이희찬⑦
▲전영배⑦ ▲전재구⑦ ▲전해성⑦ ▲정희찬⑦
▲조영철⑦ ▲조용인⑦ ▲지태우⑦ ▲진영호⑦
▲진재철⑦ ▲차규현⑦ ▲채준석⑦ ▲최동환⑦
▲최병인⑦ ▲최상호⑦ ▲최정길⑦ ▲최창현⑦
▲최철호⑦ ▲최후집⑦ ▲탁병오⑦ ▲하성환⑦
▲허위구⑦ ▲황교선⑦ ▲황상규⑦ ▲황의철⑦
▲황활용⑦

◇고급금융과정

▲강호식⑦ ▲권영운⑦ ▲김동환⑦ ▲김정갑⑦
▲성동언⑦ ▲손준철⑦ ▲송영규⑦ ▲이명근⑦
▲임천모⑦ ▲장인택⑦ ▲전유철⑦ ▲조영천⑦
▲진병천⑦ ▲최인규⑦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경섭⑦ ▲김기영⑦ ▲김복승⑦ ▲배성준⑦
▲오홍재⑦ ▲윤성진⑦ ▲이영세⑦ ▲이종복⑦
▲임무경⑦ ▲전종희⑦ ▲정창수⑦ ▲채성석⑦
▲최용상⑦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강태영⑦ ▲김경환⑦ ▲김정모⑦ ▲김종호⑦
▲김형운⑦ ▲박준호⑦ ▲변봉주⑦ ▲오원근⑦
▲윤 건⑦ ▲이영길⑦ ▲이정진⑦ ▲장태복⑦
▲장현수⑦ ▲조성태⑦ ▲조영원⑦ ▲허 준⑦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영숙⑦ ▲김영숙⑦ ▲노분영⑦ ▲백성희⑦
▲여순이⑦ ▲이상애⑦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9년 4월 1일 ~ 4월 30일〉

개 인

◇人文大學

▲권보태⑦ ▲김민정⑦ ▲김보현⑦ ▲김지은⑦
▲민병천⑦ ▲신수남⑦

◇社會科學大學

▲강창민⑦ ▲김성영⑦ ▲김환영⑦ ▲남주리⑦
▲박철희⑦ ▲배중강⑦ ▲안동희⑦ ▲유병학⑦
▲조준용⑦

◇自然科學大學

▲강경태⑦ ▲강영상⑦ ▲권남익⑦ ▲김보형⑦
▲김일권⑦ ▲김종덕⑦ ▲남경순⑦ ▲민구봉⑦
▲원재관⑦ ▲유미정⑦ ▲윤성익⑦ ▲이승우⑦
▲전종환⑦ ▲정영민⑦ ▲조성호⑦

◇家政大學

▲허정원⑦ ▲이혜원⑦

◇工科大學

▲강주년⑦ ▲고병주⑦ ▲곽 찬⑦ ▲김상원⑦
▲김 석⑦ ▲김현진⑦ ▲박건수⑦ ▲박병기⑦
▲박정원⑦ ▲연동희⑦ ▲유익선⑦ ▲이경아⑦
▲이기선⑦ ▲이심용⑦ ▲이용호⑦ ▲이혜인⑦
▲전홍우⑦ ▲정건식⑦ ▲정재웅⑦ ▲정현옥⑦
▲황은주⑦

◇農業生命科學大學

▲김동근⑦ ▲강석남⑦ ▲김철우⑦ ▲박상옥⑦
▲유미랑⑦

◇農科大學

▲김종호⑦

◇美術大學

▲강연정⑦ ▲이영호⑦

◇師範大學

▲권영희⑦ ▲김보림⑦ ▲노태권⑦ ▲류명희⑦
▲박미용⑦ ▲안수진⑦ ▲염은열⑦ ▲이병갑⑦
▲전병식⑦

◇音樂大學

▲이인식⑦

◇醫科大學

▲지석산⑦

◇齒科大學

▲김인수⑦

◇大學院

▲김경환⑦ ▲김혜진⑦ ▲남기혁⑦ ▲박종호⑦
▲이순형⑦ ▲이재홍⑦ ▲정영미⑦ ▲조남면⑦
▲황선영⑦

◇教育大學院

▲최정운⑦

◇環境大學院

▲한효덕⑦

◇최고경영자과정

▲고상환⑦

월 계 : 83,280,000

누 계 : 299,891,750